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韓國의 대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프레임 비교 분석
-사드(THAAD)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論弘報學科

趙 博

2017年 2月

韓國의 대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프레임 비교 분석

-사드(THAAD)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崔 洛 辰

趙 博

이 論文을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12月

趙博의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6年 12月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rames between Korea's

Key Conservative Press and Progressive Press
-Focused on Reports related to THAAD-

ZHAO BO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Nak Ji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2016.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차 례

1. 서론	1
1) 문제제기	1
2) 논문의 구성	3
2. 사드에 대한 이해	5
3. 이론적 논의	8
1) 프레임	8
(1) 프레임의 개념과 특성	8
(2) 프레임의 유형	11
(3) 보수와 진보 프레임	12
2) 정보원	13
3) 선행연구 고찰	15
4.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9
1) 연구문제	19
2) 연구방법	20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20
(2) 자료 수집과 검색 키워드	21
(3) 분석시기	21
(4) 분석유목	22
(5) 신뢰도 검증	31
5. 연구결과 및 논의	32

1) 사드 관련 신문사별 보도특성	32
(1) 신문사별 보도 량	32
(2) 신문사별 정보원	34
(3) 신문사별 프레임 유형	41
(4) 신문사별 사실 및 칼럼의 보도태도	46
2) 사드 관련 보도의 시기별 특성	47
(1) 시기별 신문사별 보도 량	47
(2) 시기별 신문사별 기사유형	48
(3) 시기별 신문사별 정보원 유형	52
(4) 시기별 신문사별 프레임 변화	67
(5) 시기별 신문사별 사실 및 칼럼의 보도태도	77
6. 결론 및 제언	80
1) 연구결과 요약	80
2) 중국신문 참고결론	82
3) 연구의 의미	83
4)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4
참고문헌	85
Abstract	89
부록: 코딩지	93

표 차례

표 1. 뉴스 프레임의 정의	10
표 2. 내용적 뉴스프레임 분석 단위	25
표 3. 신문사별 보도 량	32
표 4. 신문사별 기사유형	33
표 5. 신문사별 주 정보원의 국적	34
표 6. 신문사별 주 정보원 유형	36
표 7. 신문사별 부 정보원의 국적	37
표 8. 신문사별 부 정보원 유형	38
표 9. 신문사별 정보원의 국적(복수집계)	39
표 10. 신문사별 정보원 유형(복수집계)	40
표 11. 신문사별 주 프레임 유형	42
표 12. 신문사별 부 프레임 유형	44
표 13. 신문사별 프레임 유형(복수집계)	45
표 14. 신문사별 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	46
표 15. 시기별 신문사의 보도건수	47
표 16. 1단계 신문사별 기사유형	49
표 17. 2단계 신문사별 기사유형	50
표 18. 3단계 신문사별 기사유형	51
표 19. 1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의 국적	53
표 20. 2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의 국적	54
표 21. 3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의 국적	55
표 22. 1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 유형	57
표 23. 2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 유형	58
표 24. 3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 유형	60
표 25. 1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의 국적	61
표 26. 2단계 신문사별 부정보원의 국적	62
표 27. 3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의 국적	63

표 28. 1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 유형	64
표 29. 2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 유형	65
표 30. 3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 유형	66
표 31. 1단계 두 신문사별의 주 프레임 유형	68
표 32. 2단계 두 신문사별의 주 프레임 유형	70
표 33. 3단계 신문사별 주 프레임 유형	71
표 34. 1단계 신문사별 부 프레임 유형	73
표 35. 2단계 신문사별 부 프레임 유형	74
표 36. 3단계 신문사별 부 프레임 유형	76
표 37. 1단계 신문사별 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	77
표 38. 2단계 신문사별 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	78
표 39. 3단계 신문사별 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	78

국문요약

한국의 대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프레임 비교 분석

-사드(THAAD)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은 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반영한다. 달리 말하면, 국제적인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라별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언론보도는 언론사의 논조에 따라 다르게 틀 지워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일한 이슈라 하더라도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보도의 시각이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사드와 같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 또한 중요한 이슈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사회적, 외교적, 문화적, 경제적, 군사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전개되기도 한다. 이는 특정 이슈의 범주가 국내를 넘어 외교적 문제를 포함할 경우, 언론사의 논조보다 해당 이슈에 대한 국가적, 외교적 입장에서의 관점이 더욱 중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외교적 이슈로 부각한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의들이 언론사의 논조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드’ 관련 보도에 대한 한국의 대표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진보언론인 <한겨레> 간의 프레임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한국에서 사드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시점인 1999년 1월 22일부터 사드의 배치장소를 비롯하여 사전결정을 마무리 한 2016년 9월 30일까지이다. 분석 자료는 두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사드’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한겨레>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추출된 기사들 가운데 한겨레에 저작권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언론사에 직접 문의하여 구별방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일보 734건, 한겨레 729건의 기사를 추출하였다. 이후 1차 분석 작업을 거쳐 사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 121건을 제외했다. 이에 최종 분석대상 기사는 조선일보 649건, 한겨레 693건으로 총 1324건이다.

분석유목은 보도 량, 정보원, 프레임, 보도태도 등이다. 보도 량은 두 신문사의 보도 건수와 유형을 비교하였다. 정보원은 뉴스에 등장한 정보원의 국적과 직업유형을 구분하였다. 프레임은 ‘안보 프레임’, ‘정치 갈등 프레임’, ‘신 냉전 프레임’, ‘경제 프레임’,

‘폴뿌리 민주주의 프레임’, ‘패권 프레임’, ‘사드 사양 프레임’, ‘북한위협 프레임’, ‘한미 동맹 프레임’, ‘기타 프레임’ 등 10개 프레임으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두 신문사 간 보도 양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에서는 사실과 칼럼, 연재기사 등이 비교적 많이 나타났으며, <한겨레>의 경우에는 스트레이트와 해설기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원의 국적에서는 한국 정보원이 가장 많이 등장했고, 미국과 중국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일본, 북한, 러시아 정보원도 등장했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았다. 정보원의 직업유형은 <조선일보>에서 전문가와 익명 정보원이 더 많이 등장했고, <한겨레>의 경우에는 시민단체와 일반인이 더 많이 등장했다.

사드 관련 보도에서 가장 자주 나타난 프레임은 ‘신 냉전 프레임’이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치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안보 프레임’, ‘사드사양 프레임’, ‘한미동맹 프레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겨레>는 ‘폴뿌리 민주주의 프레임’을 더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태도는 두 신문사 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찬성태도를 보였고,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사드에 대한 보도에서도 <조선일보>는 ‘북한위협 프레임’, ‘한미동맹 프레임’ 등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프레임들은 정부의 관점과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한겨레>는 주로 사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사드’에 대한 한국의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간의 보도시각, 보도태도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사드, 프레임, 진보언론, 보수언론, 정보원, 보도태도

1. 서론

1) 문제제기

지난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지금까지 5차에 걸친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행위가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국가의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 비판하는 등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은 주변국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일본 또한 사드에 대해 전면 찬성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국가 간의 외교는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2015년, 중국의 전승일 기념식에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과시했다. 하지만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를 ‘단순한 방어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지만, 중국정부와 중국매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사드 배치 결정으로 나빠지고 있고, 중국에서는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처음 사드 배치를 제안한 것은 미국의 세계 MD 방어 시스템을 아시아 쪽에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혹은 찬성 어떠한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이유로 한국정부가 사드를 도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은 미국의 MD방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16년 7월 13일에 한국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발표 당일 성주주민들은 서울 국방부에 가서 집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성주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사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권(政 圈)도 사드 배치장소 발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현재 까지도 사드에 대한 당론이 없는 상태이며, 심지어는 이로 인한 당내 갈등까지 불거 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친박파(親朴派)와 비박파(非朴派) 두 파로 그 의견이 분열된 상태이다.

한국은 현재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사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주 주민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성주에 방문한 황교안 총리에게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중국정부도 한국정부에 강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단계적인 경제 보복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사 드 배치 결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정치, 외교,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나 타나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고 할 수 있다.

언론은 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달리 말하 면, 국제적인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라별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국가라 하더라도 신문사의 논조에 따라 동일 한 사건에 대한 보도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물론 사드와 같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슈의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사회적, 외교적, 문화적, 경제적, 군사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가치를 내포한다. 특히 언론이 어떠한 프레임으로 그 이슈를 보도하느냐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해석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언론은 프레임을 사용해서 이슈 또는 쟁점 등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여 국 민들에게 전달한다(Gamson & Modigliani, 1989). 프레임의 사회적 현실 재구성은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강조 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재해석의 패턴 (Gitlin, 1980)으로, 프레임은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할 때 작동하는 가이드라 인의 역할을 한다(이동훈·김원용, 2012). 이에 따라 사람들은 뉴스의 틀 짓기를 통해 형성된 정보들을 종합하여 현실을 재구성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현실이 바로 사람들 이 이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시 말해, 독자들이 사드 관련 기사를 읽고, 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사드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사드 관련 프레임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사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 유추해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사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목표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향후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의 태도, 정치상황, 외교, 군사 등에 어떤 변화가 예측되는지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반응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와 진보신문인 <한겨레신문>이 사드에 대해 어떻게 틀 짓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들 신문은 정치 성향이 다른 만큼 그 내용 또한 다를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사별 보도태도, 프레임, 정보원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당초 사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보도 비교를 하고자 했으나, 중국의 대표 신문인 <인민일보>와 <광명일보> 등에서 사드 관련 기사가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에 한정하여 분석했다.

2)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사드 관련 보도에 대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 프레임 비교 연구이다. 이에 대한 한국 내에 사드 사건의 발전 맥락과 두 신문사의 보도특성 등에 대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다섯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서론 부분은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배경을 제시하여 연구의 이유와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사드 이슈의 중요성도 같이 제시하였다.

둘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등을 정리하였다. 이론적 배경에는 사드의 사양과 프레임, 정보원 그리고 선행연구로 구성되었다. 먼저, 사드에 대한 개념과 시스템을 소개하고, 프레임의 개념, 유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가운데 프레임의 중요성과 프레임의 기준연구들로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정보원의 중요성, 다양성 등 개념과 선행연구에 대한 정리하였고, 마지막에 프레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문제를 설명하고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분석 대상, 시기, 유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연구결과와 논의에 대해 정리하였다. 앞서 서술한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수행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시하였다. 신문사의 보도량, 정보원, 프레임, 보도태도 등을 통해서 보수적 신문인 <조선일보>와 진보적 신문인 <한겨레>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계획도 함께 제시하였다.

2. 사드에 대한 이해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종말비행단계(대기권에 다시 돌입하는 단계)에 돌입한 적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¹⁾ 즉, 사드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반경 200km, 고도 40-150km 사이에서 요격하는 체계를 갖는 것으로, 미사일을 탐지하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 (AN/TPY-2), 요격미사일과 6개의 발사대, 통신과 데이터를 관리하는 화력통제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사드는 기존의 다른 미사일 방어체계와 달리 소통과 상호 운용 능력이 뛰어나 미사일 방어망을 더욱 탄탄하게 하고 작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한다.

레이더는 미국의 레이치온 사가 제작하는 AN/TPY-2로, 탐지거리가 최대 2천 km에 달하는 전진배치형(Forward-Based)과 1천 km 미만인 종말배치형(terminal-Based) 등 두 종류가 있다. 두 레이더 모두 상호 교신하면서 적의 미사일 궤도를 추적해 요격을 지원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거리가 짧은 종말배치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드는 이미 4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가장 먼저 지난 2013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괌에 실전배치가 이뤄졌고, 텍사스의 포트 블리스 기지에 2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다.²⁾

이러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하여 중국이 민감한 이유는, 사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가 자국의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³⁾ 즉, 중국은 사드 배치가 한국의 대북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아닌, 한국이 미국의 MD체계의 편입과 그에 따른 한반도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영향력 확산을 걱정하고 있다.

그간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패권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해양 전력의 접근을 거부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해군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사력이 미국에 뒤떨어지는 중국의 전략은 동평21(DF-21)로, 대함미사일을 육상에서 발사하여 사정거리

1) <https://ko.wikipedia.org/wiki>

2) <http://www.voakorea.com/a/2688248.html>

3)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98100005&ctcd=C03>

1300~3000Km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⁴⁾ 이는 같은 A2/AD전력을 확보하여 서태평양/동아시아에서의 미국 해군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자국의 해군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⁵⁾

하지만 한국에 X-Band레이더를 포함한 사드의 설비가 들어올 경우, 이러한 전력이 노출,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미 해군의 영향력을 몰아낸다는 A2/AD전력⁶⁾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동아시아/서태평양에서의 자국의 영향력 확대의 걸림돌이자 동시에 미국 해군에 대한 대응 수단의 약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드에 대해서 한국 내에 많이 쟁점이 있다. 박근재(2016)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사드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내 배치될 사드의 경우, 북한을 응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요격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한국의 상공을 지나갈 때 사드가 이 미사일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중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은 발사 직후부터 1,000km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면 사드의 요격 범위가 아니다(박휘락, 2015).

두 번째 쟁점은 사드 운용을 위해 배치되는 X-Band레이더이다. X-Band레이더가 중국 내륙의 군사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군은 이 레이더를 통해서 중국을 위해 맞는 군사 배치를 할 수 있다. 이 레이더를 통한 감시거리는 1,800km까지이며, 고도는 190km까지다. 따라서 중국 중심지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이다(신영순, 2015).

세 번째 쟁점은 사드 배치 비용이다. 사드 1개 포대의 도입비용이 최소 1조에서 최대 2조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며, 비용 대비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했던 도입 반대 측의 주장은 최근 배치에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영비용 등은 미국이 한국에게 필연적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 주장한다. 비용문제의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사드의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

4) <https://ko.wikipedia.org/wiki/DF-21>

5) <https://www.usnwc.edu/Lucent/OpenPdf.aspx?id=95>

6) <https://www.usnwc.edu/Lucent/OpenPdf.aspx?id=95>

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이 역시 이미 수 개의 국가에서 사드 포대를 구매하여 운용중이고 2005년부터 11번의 요격시험을 포함하여 13번의 운용 시험에서 모두 성공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박휘락, 2015).

네 번째 쟁점은 한국 국민들이 반대하는 레이더의 유해 전자파 논란이다. 레이더 설치 근처 지역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방부는 100m를 넘으면 피해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이보다 더 넓은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도 미군이 괌에서 설치한 사드로 예를 들면서 2009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자신이 제시한 바를 인증해서 또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실에 맞는 안전기준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일보, 2016년 2월 15일).

3. 이론적 논의

1) 프레임

(1) 프레임의 개념과 특성

이준웅(2000)은 사회의 각 조직에 고유한 의미부여 방식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프레임(frame)’이라고 명명했다(이준웅, 2000). 그 정의에 따라 어떤 사회조직의 기본적인 틀에 따라 그 틀의 이용자들이 많은 구체적인 사건을 틀에 의해 규정된 한계 내에서 인식하고, 지각하고, 확인하고, 규정한다.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은 고프만의 ‘프레임’ 개념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연구를 확장했다(이준웅, 2000).

많은 학자들은 터크만(Tuchman, 1978)이 제시한 ‘프레임(frame)’의 개념을 인용하고 있다(박태우, 2013). 즉, 사람들이 실내에서 창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물이나 경치를 보는 것이 창이 색깔이나 투명도에 따라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이 다르다는 것이다. 프레임은 사회의 사건이나 이슈를 재구성하여 사람들에게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틀’인 셈이다.

이러한 프레임은 양적 연구방법을 대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주로 특정 사건 및 이슈에 대한 뉴스보도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임은 그 틀을 중심으로 현실을 재구성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원인, 해석, 도덕적 평가, 그리고 해결방법 등을 분석하는 유용한 틀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레임은 사회 이슈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고 평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보도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프레임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특정 사회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이완수·배재영, 2015)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의 프레임이 구체화된 현실을 설명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프레임은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주로 뉴스의 생산,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분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가장 많

이 인용한 개념은 기틀린(Ginlin, 1980)의 주장이다. 기틀린(Ginlin, 1980)은 프레임을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제시, 선택, 강조, 배제를 통해 이뤄지는 지속적인 재해석의 패턴”이라고 정의했다(반현, 2010). 이에 따라 신문사는 프레임을 통해 현실을 구성하여 제공한다. 특히 프레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슈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신문사들이 벗어날 수 없는 이미지와 관행이다. 달리 말하면, 신문사들이 갖고 있는 논조에 따라 보도관점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 또한 이러한 틀을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프레임의 한계와 틀을 구성해서 보도 프레임 중에 틀과 한계는 신문사가 기사의 구성과 의제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 정보를 선택함으로써 의제의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김은미, 2012).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프레임을 신문기자와 정보원, 수용자 그리고 사회화경 간의 영향 관계를 통해 도출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미디어가 특정 정보를 수용자에게 보여주고, 수용자들은 기사를 통해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문석(2002)은 언론이 프레임을 통해서 특정 정보를 선택, 강조, 배제하여 커뮤니케이션 효과로서 수용자들의 의식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현실을 재구성하며 특정 의미를 부여하는데 사용되는 뉴스 프레임은 집단 혹은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발견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유세경, 2010). 또한 여러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집단들이 지역사회 내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그 이슈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지작용을 통해 특정의 의미가 부여되고, 특정 이슈에 관한 의미는 그 이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개인들이나 집단들 간의 정치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강내원, 2001).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과 이슈들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구조, 언론 조직, 제작관행, 기자의 의식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선택된 사건과 이슈에 대한 어떠한 시각에서 보도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고 어떤 부분을 희생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의 틀 짓기 작업’이라는 것이다(김훈순 2004).

표 1. 뉴스 프레임의 정의

학자	뉴스 프레임 정의
고프만 (Goffman, 1974)	수용자들이 현실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석적 스키마 사건에 대한 상황을 규정하고 사건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맥락을 전달하는 기능
터크만 (Tuchman, 1978)	뉴스는 세계를 묘사하는 틀 제도화된 뉴스 제작과정의 선택과 배제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되는 현실
기틀린 (Gitlin, 1980)	인지, 해석, 제시, 그리고 선택과 강조와 배제의 지속적 패턴 미디어가 언어적, 영상적 담론을 상투적으로 조직하는 헤게모니 장치
아이엔거와 킨더 (Iyengar & Kinder, 1987)	판단과 선택의 문제를 진술하거나 제시하는데 있어서 미묘한 변형 틀로 작용. 메시지 프레임의 조작에 따라 개인 판단의 범위 구조화 가능 중요하게 인식된 이슈나 개념을 반복하면서 후속적인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침
갨슨 (Gardner, 1988)	이슈, 문화를 사회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해석적 패키지 다양한 수사적 표현과 의미전달 요소들로 하나의 뉴스 스토리를 형성,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
아이엔거 (Iyengar, 1991)	"framing"이라는 용어를 사용, 프레이밍은 판단 및 선택의 문제를 표현하거나 제시하는 과정의 미묘한 변경
엔트만 (Entman, 1993)	'선택'과 '현저성' 의 개념 도입. 이슈구성에서 몇 가지 관점들이 선택되고 텍스트에서 보다 두드러지며 유의미하게 되는 과정
팬과 코시키 (Pan & Kosichi, 1993)	다양한 정보를 조직화하고 구체화해 수용자의 인지에 영향을 주는 '해석구조' 수용자 프레임에 대한 이해 강조
이준웅 (1997)	독자나 시청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뉴스를 이해하도록 돕는 이야기 구성방식
슈펠 (Scheufele, 1999)	현실적인 사건, 사고들을 다양한 관점에 따라 전달하기 위해 해석적 기능을 담아 재구성한 것

* 임미영·안창현·김규식·유홍식 (2010). 박근혜에 대한 보도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권 3호, 461-462. 재인용.

이처럼 프레임에 대한 특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프레임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 과정에서 미디어가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틀을 구성하고, 이를 접한 수용자들은 미디어의 틀 짓기에 따라 사고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는 사회의 의제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틀 짓기를 통해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정부의 정책 혹은 사업 시행에 대하여 미디어가 어떤 틀을 구성하여 보도하는지에 따라 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수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 프레임의 유형

프레임 연구 방법은 학자마다 다르다. 뉴스 프레임 연구는 크게 뉴스 구성방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뉴스내용에 중점을 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석방법은 ‘주제 중심적’ 프레임과 ‘일화 중심적’ 프레임이다(김훈순, 1998). 먼저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인과관계에 따라 이슈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인식하고 분석적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보도하는 사건에 대한 사건 중심적 혹은 시각적 호소, ‘현장성’ 강조로 접근하는 프레임을 말한다.

두 프레임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개인화, 극화의 특성을 갖고 있고 사회적 문제를 개별화된 문제 또한 개인의 문제로 보도하거나 극적 요소와의 갈등을 부각시킨다.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심층적 거시적인 특성을 지니며 구체적인 사례는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 이슈를 드러내고 사건의 배경과 해결, 전체 맥락을 다루고 사회구조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박은혜·김영욱, 2007).

한편, 주제 중심적 프레임에 대해 이진경(2007)은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일반적, 심층적, 거시적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이란 통계자료 이용, 경향의 서술 상황의 제시를 통해서 사안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심층적’이란 사건의 배경 그리고 해설을 통해 사안의 맥락을 제공하는 총체적인 보도경향을 의미한다. 또한 ‘거시적’이란 이슈가 된 사건의 배경을 사회의 구조적 측면에서 연관을 짓고, 그러한 경향에 대하여 사회의 다양한 측면과 연계

해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일화중심적 프레임은 개인화, 극화, 구체화 속성을 보인다. 사건 혹은 이슈를 개인이나 인간의 흥미에서 보도하는 것이다. 극화란 갈등적 사건 보도에 대한 극적 요소와 갈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건 또한 이슈를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프레임 유형은 세메트코와 벨켄버그(Semtko & Valkenburg, 2000)의 프레임으로, 여기에는 ‘갈등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책임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 등 다섯 가지가 포함된다(유세경, 2010). 갈등 프레임(conflict frame)은 수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 간이나, 집단 간, 혹은 개인과 집단 간에 갈등을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human interest frame)은 사건이나 이슈를 보도할 때 사람들의 얼굴, 표정 상태를 주로 묘사하는 프레임이다. 도덕성 프레임(morality frame)은 사건 혹은 이슈를 보도할 때 도덕 윤리의 맥락을 가지고 보도하는 프레임이다. 책임 프레임(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rame)은 주로 정부 혹은 개인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보도하는 프레임이다. 경제적 결과 프레임(economic consequence frame)은 개인이나 단체 정부 등에게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이상 5가지 유형은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 유형이다.

(3) 보수와 진보 프레임

프레임은 사회 속에서 공유되는 구성 원칙이 상징적으로 작용하여 사회현상을 구조화하는 것으로, 어떤 보도의 주제의 중심적 속성과 이념, 그리고 도구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진우·김수연, 2011). 또한 프레임은 “공적 이슈를 대중들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상징적인 기호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포괄적인 과정(박진우·김수연, 2011, 333쪽)”이라고 할 수 있다.

김춘식(2015)은 “한국 사회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보도 프레임에 대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진보정권’, 2008년 이명박 정부와 현재까지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고 정리했다.

이러한 프레임 분석은 특정 뉴스에 대한 언론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방법이다(김은이·반현, 2012). 프레임 분석을 통해 어떤 주제에서 어떤 부분을 부각 혹은 축소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언론사의 보도태도를 비교할 수 있다(김은이·반현, 2012).

2) 정보원

정보원은 뉴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보도의 내용과 논점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기자들은 취재활동에서 사건의 이슈와 맥락을 잡기 위해 정보원의 선택을 중요하게 판단한다. 이는 어떤 정보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기사 내용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뉴스는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일어난 사건이나 일어날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한동섭·임종수, 2002, 525쪽). 사회적 쟁점 사건이나 이슈에 있어 언론사마다 인용하는 정보원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한동섭·유승현, 2008). 달리 말하면, 동일한 이슈나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보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사태도나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서현·고영철, 2013).

실제로 한국의 신문기사는 정보원의 언론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게 때문에 정보원의 발언은 기사 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하고 강조된다(박재영, 2006; 이재경, 2006). 현실적으로도 언론사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정보원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원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료나 문서 등 형태의 모든 확인 가능한 정보들이 다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다(임영호·이현주, 2001).

터크만(Tuchman, 1978/1995)은 뉴스는 사실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 제작진이 일종의 틀을 가지고 뉴스를 제작하며, 그 틀의 특징에 따라 뉴스의 내용이 윤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진행남, 2002, 611쪽에서 재인용). 정보원의 이용과 선택이 중요한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보원은 “미디어가 특정 사건을 선택하고 틀 짓는 기사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설진아·남궁강, 2007, 73쪽에서 재인용).

정보원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동근(2004)은 정보원의 유형과 직위에 따라 보도의 내용이 좌우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기자에게 대부분의 뉴스는 실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발생했다고 말한 내용”도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정보원의 선택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뉴스의 생산 과정이 정보원부터 시작하며, 정보원은 저널리즘의 밑그림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신문사는 자사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보원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며, 중요한 내용 혹은 필요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가공함으로써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자신의 주장과 일치시키는 경향을 보인다(한동섭, 2008).

유채천과 이민웅(1994)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에 의존하며 기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보의 공식발표 혹은 배경설명, 기자회견 등과 같은 정보와 관계 공직자 및 전문가에 대한 개인 취재나 인터뷰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언론보도의 방향에 정보원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언론이 정보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기사의 가치 및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은 정보원의 사용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윤영철, 1992). 그리고 정보원들은 자신의 언론이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스토리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Rich, 2005). 이에 따라 정보원들의 언론이 보도 프레임 구축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평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조아라, 2016; 39쪽에서 재인용).

고영철(2013)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정 정보원의 이용과 선택이 기사의 논조 및 프레임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기 위해 국내 5대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에 보도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관련 보도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뉴스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출처(정보원)가 미디어 의제 혹은 프레임과 보도논조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식적 보도 자료를 많이 사용한 신문일수록 긍정적인 기사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성향의 신문(조·중·동)은 행정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문제점은 축소하거나 철저히 배제시켰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겨레신문은 행정기관 등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대신 기자들이 직·간접 취재활동을 통해 입수한 각종 자료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의견 등을 혼합해서 쓴 기사비율이 가장 많았다. 그 결과, 한겨레는 긍정적인 기사보다 부정적인 시각

의 기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의 유형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보원의 소속에 따라 정보원 유형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공무원, 의회 지도자 등은 정부 관계자에 속하고, 정책 리더에는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주로 전문가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전문가에 속한다(이동근, 2004). 임영호와 이현주(2001)는 정보원 유형을 조직으로 분류해서 정부기관,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기타로 구분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사드와 관련한 뉴스보도의 프레임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사드 혹은 이와 유사한 이슈를 주제로 한 연구가 많지 않아 선행연구 분석은 주로 이번 사드 관련 주제의 논문을 참고해서 정리하였고, 또한 중국 유학생들이 쓴 프레임 연구와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프레임 비교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준수(2013)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북한 제3차 핵실험’에 대한 프레임을 분석했다. 주요 분석은 두 신문사의 보도의 양, 프레임 구축형식, 그리고 프레임 차이를 연구했다. 연구기간은 2013년 2월 13일부터 2013년 3월 7일까지이다. 분석대상 건수는 조선일보가 115건, 한겨레신문이 56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조선일보는 93건(81%)이 스트레이트 기사였고, 논단·칼럼 8건(10%), 사설은 14건(12%)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스트레이트 기사가 38건(68%), 해설·초점은 2건(3%), 칼럼 및 사설이 각각 10건(18%), 6건(11%) 순으로 나타났다. 프레임은 주로 안보적 위협, 제재대상으로서의 북한, 대북 정책 실패의 산물, 박근혜 정부의 과제, 그리고 중국 인민의 대북인식 변화원인 등 6개로 추출했다. 연구결과, 두 신문사의 차이점은 조선일보가 49건(35.7%)으로 안보적 위협으로서의 프레임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20건(27.7%)으로 주요 프레임 중 제재대상으로 보는 프레임과 비슷한 정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중국 인민의 대북 인식변화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19건(13.8%)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기사를 이 프레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차이로 한겨레신문은 4건(5.5%)의 기

사만 이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수신문이 진보신문에 비해, 안보 및 북한관련 이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임미영 등(2010)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보도한 박근혜에 대한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당시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이어서 ‘정치인 박근혜’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기간을 1단계는 당대표 시작~피습 직전(04.3.23~06.5.19), 2단계는 피습~경선 패배 직전(06.5.20~07.8.19), 3단계는 경선패배 이후(07.8.20~10.3.30)로 분류하였다. 분석 대상은 해당기간에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기사다. 프레임 유형은 ‘원칙주의’, ‘투자’, ‘정치적 영향력’, ‘인간적 흥미’, ‘위상 저하’, ‘자질 부족’, ‘주변인’, ‘갈등의 접점’ 등 8개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원칙주의’, ‘투자’, ‘정치적 영향력’ 프레임은 긍정 프레임이고,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중도 프레임이다. 또한 ‘위상 저하’, ‘자질 부족’, ‘주변인’, ‘갈등의 접점’ 프레임은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박근혜의 정치적 영향력(28.1%)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박근혜가 여성 정치인을 넘어선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 2단계는 부정적 프레임이 별로 없지만 3단계는 부정적 프레임인 ‘갈등의 접점’ 프레임, ‘자질 부족’ 프레임, ‘주변인’ 프레임, ‘위상저하’ 프레임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여성 정치인들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강조되었지만 여전히 여성 정치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김춘식(2015)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한국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프레임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통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의 쟁점 및 정당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2014년 9월 18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언론보도 프레임의 형식과 유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이버 명예훼손은 주로 정황 프레임, 귀인 프레임, 배경프레임, 가치 프레임으로 구분하였고,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개별적인 일화중심으로 전개되는 주로 정황 프레임과 귀인 프레임에 따라 가사가 생산되었음을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프레임에 따른 기사 보도가 압도적이었다.

왕 리리(WANG LILI, 2012)는 한국의 조선일보를 통해서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과 관련된 기사에 나타난 기본적인 특성과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신문에 나타난 중국과 관련된 뉴스보도의 보도 량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도의 단어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별 보도 량에 대한 다른 선행연구와의 비교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보도형식은 기획/특집이었다. 종합적으로 한국 언론은 중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이미지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판 씨아오링(FAN XIAOLING, 2014)은 중국에서 발행수가 가장 많은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와 미국의 대표신문인 <뉴욕타임스>에 나온 국제 뉴스를 비교했다. 구체적으로 두 개 신문사의 보도 량, 보도지역, 보도주제, 보도사진 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개 신문사에서는 차이점과 공통점이 나타났다. 두 개 신문사의 보도 성향은 <차이나 데일리>의 경우, 주로 정치뉴스, 외교뉴스가 가장 비중이 높았던 반면, <뉴욕타임스>는 전쟁뉴스, 경제뉴스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차이나 데일리>는 다른 국가 통신사의 기사를 많이 인용하고, <뉴욕타임스>는 자사의 기자가 쓴 기사를 많이 다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연구자는 <차이나 데일리>는 <뉴욕타임스>에 비해 객관성과 진실성이 부족하고, <뉴욕타임스>의 수준에 이르려면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 슈오(LI SHUO, 2011)는 중국의 <인민일보>와 <경화시보>에 나타난 ‘한류’ 보도에 대한 틀 짓기에 주목했다. 주요 프레임 유형으로는 정치, 문화, 경제, 경계, 비교 등의 프레임 유형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중국의 주요 언론들은 다양한 틀짓기 방식을 통해서 ‘한류’ 현상에 대한 보도하고 언론사별로 같은 이슈를 다르게 틀 지워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국 언론의 기사 구성방식에서도 중국 언론이 한류 현상의 본질적인 형성 원인을 깊게 분석하는 보도방식인 주제 중심적 프레임이 아니라 간략한 에피소드만으로 한류에 대한 보도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류 관련 보도는 주로 문화 프레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치프레임, 경제프레임, 경계프레임, 비교프레임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특히 <인민일보>의 경우에는 중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당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반면, <경화시보>는 문화프레임을 보다 빈

번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의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이 사드에 대해 보도가 다를 것이라고 보고, 이를 프레임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두 언론은 같은 사건 혹은 이슈라고 하더라도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 다른 만큼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 보았다. 이에 앞서 정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 연구문제 1: 사드 관련 보도특성은 신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1-1: 보도량은 신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1-2: 정보원은 신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1-3: 뉴스 프레임은 신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1-4: 의견기사(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는 신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사드 관련 보도의 보도특성은 시기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가?
 - 연구문제 2-1: 보도량은 시기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가?
 - 연구문제 2-2: 정보원은 시기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가?
 - 연구문제 2-3: 뉴스 프레임은 시기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가?
 - 연구문제 2-4: 의견기사(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는 시기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동북아 질서와 관련된 군사체계에 대한 정치권력과 다른 나라가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게 될 때, 한국의 경제, 외교,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주요 맥락을 중심으로 내용적 프레임을 분류하여 한국의 국가 안전적, 정치적, 사회적, 외교적 상황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와 진보신문인 <한겨레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당초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언론보도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중국의 대표신문인 <인민일보>, <환구시보>, <광명일보>, <중국청년보> 등의 신문을 기사검색해서 그 보도량이 70건이 채 되지 않고, 대부분 스트레이트 위주의 기사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환구시보>의 경우, 당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론 부분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언론보도에 대한 언급을 통해 중국에서 사드 관련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완하였다.⁷⁾

<한겨레신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신문으로, ‘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민족의 통일을 목표로 국민에 바탕을 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정립’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대중적 정론지’라 표방하고 있다.⁸⁾ 반면에 <조선일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신문으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다. 이 두 신문사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한국의 진보신문과 보수신문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7) 사드에 대한 중국의 언론보도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보완 설명을 할 뿐, 분석결과 및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0964&cid=40942&categoryId=31755>

(2) 자료 수집과 검색 키워드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미군이 한국에 '사드'에 대한 논의를 처음 시작한 1999년 1월 22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이다. 분석대상 기사는 분석대상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사드'라는 검색어를 통해 추출된 기사들로 한정하였다. 수집과정 중 <한겨레> 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추출된 기사들 가운데 저작권이 한겨레에 있는 기사가 아닌 경우에는 당사에 문의하여 저작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 확인한 이후에 분석대상 기사를 선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분석대상 기사는 한겨레의 경우, 729건이었고, 조선일보는 734건이었다. 이후 1차 분석 작업을 통해 사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 121건을 제외했다. 이에 따른 최종 분석기사 수는 <조선일보>가 649건이고 <한겨레>가 693건이었다.

(3) 분석 시기

본 연구에서는 사건 맥락을 3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1단계는 미군이 사드를 처음 제안할 때부터 북한이 광명성 4호 발사했을 때까지다. 미군이 한국 정부에 사드 도입에 대해 처음 제안했을 때 한국정부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신문 보도 량도 많지 않고 주변 국가들도 사드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1단계는 사드 도입의 '전주(前奏)'로 보았다.

2단계는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한 후부터 한국 정부 사드 배치 장소를 결정하기 전까지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사드에 대한 논의가 증폭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두 개의 의견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들의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변 나라의 태도도 표출되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나라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드에 대한 국내외의 태도나 반응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1단계와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할 수 있다. 2단계는 사드 도입의 '논쟁기'로 본다.

3단계는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장소를 결정한 이후부터 9월 30일까지다. 이 시기에는 성주 주민 중심의 한국 국민들이 사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한국정부가 성주 성산포대 대신 다른 배치장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성주 롯데골프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주민들이 사드 결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태도에 비해 정부의 태도가 확고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회의나 다른 장소에서 사드를 반드시 배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이 단계는 사드 도입의 ‘확정기’로 보았다.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사드 도입에 대한 기사보도를 통해서 사건의 맥락을 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전에 따라 기사보도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사의 태도나 프레임 유형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4) 분석유목

① 보도 량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에서 보도된 사드 관련 기사에서 나타난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양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양적 분석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으로, 연구대상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구체적인 수량을 제시하는 분석방법이다.

특히 보도 량은 해당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관한 보도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이슈를 확대나 감소시킨다는 것이다(신승훈, 2009). 김성해와 김동운(2009, 108쪽) 또한 특정 사건이나 이슈가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도 량의 증가 혹은 사설과 칼럼, 기획과 해설 및 인터뷰 등의 기사 비중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심층보도에 해당하는 의견기사의 비중을 통해 언론의 의제화 경향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된 사드 관련 기사의 보도 량을 중요한 분석요소로 보았다.

② 정보원 유형과 측정방법

정보원 유형은 정부, 국방부, 국회/정치인, 기업, 언론,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인, 익명(소식통), 경찰·법조계, 기타 등 11가지 분류했다. 그 중에 국방부는 원래 정부 소속이 되었는데 사드의 속성을 고려해서 국방부는 따로 분리하였다. 또한 기타는 다른 정보원유형을 해당하지 않은 유형은 기타로 분류하였고, 그 중에 유엔 안보리는 나라별도 기타 유형도 기타로 분류하였다. 전문가의 경우는 대학교수, 학회 등 전문적인 사람이나 단체들이다. 또한,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을 당선했는데, 자료 분석과정 중에 당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분류하였다. 익명(소식통)은 기사 중에 많이 나온 단어이다. 이름 공개하지 않고 소속도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익명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보원은 기사에서 등장하는 2번째 정보원까지 분석하였다. 분석하는 방법이 신문내용에 따라 선착순으로 2번째까지 등장한 정보원을 수집해서 등장한 정보원의 국적과 유형을 따로 수집해서 분석하였다. 그래서 먼저 등장한 정보원은 주 정보원이고, 2번째 등장한 정보원은 부 정보원이다.

정보원 유형 가운데 익명 정보원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였다. 익명 정보원은 주로 ‘소식통’, ‘당국자’, ‘고위 당국자’ 등으로 등장하였다. <한겨레>의 2016년 9월 21일자 “넘쳐나는 ‘대북 소식통...’ 대체 누구일까”라는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을 ‘유령’이라 보았다. 정체가 없고 소속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령’이라는 것이다. ‘소식통’ 또한 공무원이 아니며, 흔히 ‘고위 당국자’는 장·차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은 차관보다 실장급 등 고위 직업 공무원을 뜻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국자’는 정부 중앙부처의 국장급을 지칭하며, ‘관계자’는 보통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을 뜻한다고 한다.

③ 프레임 유형과 측정방법

사드 관련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모든 기사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적 연구방법은 기사 내용에 대한 간단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타당한 특정 규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Lacy & Fico, 1998/2001). 구체적으로 사드 관련 기사의 보도 량, 기사유형, 정보원 유형, 그리고 뉴스 프레임에 주목하였다. 또한 언론사의 입장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 사실과 칼럼의 경우에는 보도태도와 뉴스 프레임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뉴스 프레임 분석에 있어 프레임 유형을 도출하는 방법에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다(Semetko & Valkenburg, 2000). 연역적 방법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프레임 유형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귀납적 접근방법은 분석대상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프레임 유형을 포함시키는 것이다(김춘식·이영화, 2008). 귀납적 방법은 분석대상에 나타난 프레임 유형이 선행연구에 도출한 유형과 관련성이 적거나, 기존과 다른 이슈를 갖고 있는 뉴스보도의 분석에서 주로 사용된다. 반면, 연역적 방법은 기존의 프레임 유형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제가 다를 경우에는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프레임을 놓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귀납적 방법도 이슈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프레임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연구자의 능력에 따라 완전하지 않은 프레임을 도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세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가 제시한 5개의 프레임 유형은 ‘갈등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경제적 중요성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책임 프레임’ 등 5개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슈인 만큼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병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프레임 귀납절차는 1차에 기사에 주요 내용분야를 분류해서 사건 발전 맥락에 따라 같은 분야의 내용을 합쳐서 프레임을 정리했다. 귀납적 프레임 도출의 주요 근거는 기사 제목과 리드, 그리고 주제어 등이다. 기사의 제목과 리드는 전체 기사내용의 내용을 알려주거나 요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사의 주제어는 기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로 본 연구에서는 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가 제시한 기존의 5가지 프레임 유형 중 '갈등 프레임'과 '경제 프레임'을 참고하였고, 귀납적 방법을 통해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최종 프레임은 '한국 안보 프레임', '한국정치 프레임', '신 냉전 프레임', '경제 프레임', '한국 사회 프레임', '군사 패권 프레임', '사드 사양 프레임', '북한위협 프레임', '한미동맹 프레임', '기타 프레임' 등 10개 프레임이다.

프레임 분류방법은 보도내용 위주로 분류해서 기사 가운데 등장한 정보원들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내용적 뉴스프레임 분석 단위

프레임 유형	내용
한국 안보 프레임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설치해야 된다는 언론과 단어를 강조하는 기사. 키워드:"안보", "안전", "방어" 등
한국 정치 갈등 프레임	'사드' 배치함에 따라 한국 국내 정치에 상황, 여, 야당과 정부가 '사드'에 대한 태도, 정부가 '사드'에 대한 전달한 정책과 사항등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 키워드: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 "외교부" "토론" 등
신냉전 프레임	'사드' 배치에 따라 나온 중북러 대 한미일 정세, 한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 등 나라 간에 관계 내용으 포함하는 기사. 키워드: "한중 관계" "한미 동맹"
한국 경제 프레임	'사드' 배치에 대한 나온 경제적 영향 키워드: "경제보복", "한국 경제", "발전", "무역" 등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	한국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반응 이 중에 주로 성주 주민 위주로 한국 국민 사드에 대한 태도 키워드:"성주 주민", "집회" 등
패권 프레임	미국정부나 미군이 '사드' 한국에서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는 내용 미국 세계 MD 방어 시스템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들. 키워드:"미군", "MD", "추진", "패권" 등
사드 사양 프레임	사드에 대한 소개하는 내용 및 사드 장소 배치에 대한 나온 내용들이다. 키워드: "레이더", "요격", "배치 장소" 등

북한 위협 프레임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조하고 한국을 위협한다는 내용이 나온 기사. 키워드: "핵실험", "미사일", "북한" 등
한미동맹 프레임	북한 위협에 대해서 "한미동맹"내용을 강조하는 프레임 키워드: "한미 동맹" "동맹" 등
기타 프레임	이상 프레임 내용을 제외하는 프레임.

또한 본 연구는 사드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주 프레임과 더불어 부 프레임(제2프레임)까지 분석하고자 한다. 주·부 프레임은 신문보도에서 등장하는 프레임의 비중에 따라 주 프레임과 부 프레임으로 분류했다.

가. 한국안보 프레임

한국안보 프레임은 한국 안보 또는 국민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박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나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며 "국방 관련 문제라 미리 알릴 수 없었던 것은 국민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 2016년 8월 5일)

나. 한국정치 갈등 프레임

한국정치 갈등 프레임은 사드와 관련하여 정당 간의 갈등, 정부와 정당 혹은 국회 내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 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이견은 '예상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 태세"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반대를 '대안 없는 비판'으로 치부했고, 야당은 "박 대통령이 사드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줄 것만 계속 요구했다. 압박이라 느낄 정도"였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모양새다.

추미에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도 중국까지 나서 반대하고 있다"며 "사드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도 중국까지 나서 반대하고 있다"며 "사드 때문에 안보 경제 외교의 균형을 상실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북핵 문제와 사드 해법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공론화'를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가 입장을 공론화해 결론내야 한다"며 "국회에서 결론내야 중국도, 미국도 힘있게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2016년 9월 12일)

다. 신 냉전 프레임

신 냉전 프레임은 한국정부의 사드 배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한·미·일'과 '중·북·러'의 신 냉전에 대해 강조하는 프레임으로, 사드 배치 이후에 아시아 심지어 전 세계의 질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이제까지 대북 대응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아주 긴요한 중국을 국제공조에서 밀어 내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조금씩 구체화하는 것도 큰 부작용이다. 오랫동안 쌓은 남북 관계의 토대 역시 한꺼번에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핵·미사일 문제를 풀겠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다. 새달 초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다. 남은 수단이 이런 무력시위밖에 없다면 사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그릇된 대응은 핵·미사일 문제 악화에 더해 한반도 관련국들 사이의 다차원적 갈등 구조를 만드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한겨레, 2016년 2월 11일)

라. 한국경제 프레임

한국경제 프레임은 사드가 한국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중국의 경제보복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가 2분기 8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잠정치)을 기록하는 등 2분기 코스피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 국내 증시엔 호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중국 관련 업종에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 2016년 7월 11일)

마.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의 의견을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예를 들어 시위집회 등 일반인들의 관점 및 행위를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자 경북 성주 주민들은 4일 크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가 언제 사드를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했냐"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성주 주민들로 꾸려진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백철현·정영길·김안수·이재복)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앞으로도 계속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겨레, 2016년 8월 4일)

바. 패권 프레임

패권 프레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하나는 미국패권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패권이다. 미국패권은 미국이 일부러 사드를 추진해서 아시아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내용을 강조한다. 중국패권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한 태도를 논의하거나 중국정부의 '협박'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미국패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11, 12일(현지시각)독일 뮌헨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잇달아 만나 한국의 사드 배치가 지역 평화·안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그는 케리 장관과의 회담 뒤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는 '항장무검 의재패공' (项庄舞剑, 意在沛公 : 항장이 칼춤을 춘 뜻은 패공(유방)에게 있다), '사마소지심, 노인재지' (司马昭之心, 路人皆知 : 사마서의 야심은 누구나 다 안다)란 두 개의 고사성어를 사용하며 사드 배치가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 2016년 2월 14일)

<중국패권>

그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온 중국이 대북 미사일 방어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사드나 평화협정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 (조선일보, 2016년 2월 19일)

사. 사드 사양 프레임

사드 사양 프레임은 한국정부가 배치할 사드 방어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프레임이다. 주로 사드의 규모, 조직 부분 그리고 배치장소에 대한 설명이다.

사드 제조업체인 미 록히드마틴사는 지난2013년 우리 공군의 공개 및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결과를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중거리(300~1000KM) 미사일을 1발 발사할 경우 중부 지역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로는 동남부 및 북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 대부분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쏠 때는 중부 지역만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포대가 중부와 남부 지역에 2개 배치될 경우, 북 중거리 미사일 1발 공격에 대한 동남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 거의 대부분을, 여러 발 공격일 때는 중부 지역과 남부 일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일보, 2015년 3월 25일)

아. 북한위협 프레임

북한위협 프레임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사건이 한국의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주로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ICBM(대륙간 탄도탄)에 만약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하는 데 성공한다면? 사드(THAAD) 같은 최첨단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 없이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어렵다. 거기다 그들이 만약 2~4년 후 드디어 SLBM(장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사실 현재 기술로는 그 누구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조선일보, 2016년 1월 14일)

자. 한미동맹 프레임

한미동맹 프레임은 북한위협 프레임과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한미동맹은 주로 북한위협을 응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맹우(盟友) 관계를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한국 안보프레임, 북한위협 프레임 그리고 한미동맹 프레임은 같이 분석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따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굳건하다"며 "사드나 AIIB 논란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상당 부분 드러내기도 했다.

차. 기타 프레임

이상의 프레임에 해당되지 않은 프레임 유형은 '기타 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④ 보도태도

보도태도는 사드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주목하며, 신문사의 입장이나 논조는 대부분 사실과 칼럼을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보도태도 분석은 특정 이슈에 대한 신문사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사실과 칼럼에 한정하였다.

(5) 신뢰도 검증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통해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석유목 간 코딩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언론학 전공자 2명이 분석대상 자료의 10%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기 이전에 연구자와 함께 분석내용과 분석유목, 측정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홀스티(Holsti, 1969)의 검증공식을 활용하였으며, 코더 간 신뢰도는 ① 기사유형 0.95 ② 정보원의 국적 0.85 ③ 정보원 유형 0.83 ④ 프레임 유형 0.83 ⑤ 보도태도 0.77 등으로 나타났다.

5. 연구결과 및 논의

1) 사드 관련 신문사별 보도특성

(1) 신문사별 보도 량

① 신문사별 보도 건수

〈표 3〉에서와 같이 사드와 관련한 전체 보도 량은 〈조선일보〉가 649건(48.4%), 〈한겨레〉가 693건(51.6%)으로 나타났다. 두 개 신문사의 보도 량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신문사별 보도 량

구분		빈도	퍼센트
신문사	조선일보	649	48.4
	한겨레	693	51.6
	합계	1342	100.0

② 신문사별 기사유형

〈표 4〉와 같이 기사유형은 전체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52.7%, 707건)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그 다음으로 해설기사(23.1%, 310건), 사설(10.7%, 143건), 칼럼(6.3%, 84건), 기획/연재(5.0%, 67건), 인터뷰(1.9%, 26건), 독자투고(0.4%,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스트레이트(49%, 318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해설기사(19.7%, 128건), 사설(11.4%, 74건), 칼럼(8.8%, 57건), 기획/연재(7.4%, 48건), 인터뷰(2.9%, 19건), 독자투고(0.8%,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의 경우는 스트레이트(56.1%, 389건), 해설(26.3%, 182건), 사설(10.0%, 69건), 칼럼

(3.9%, 27건), 기획/연재(2.7%, 19건), 인터뷰(1.0%,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달리 <한겨레>는 독자투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는 <한겨레>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한겨레>의 경우, 사드에 대한 이슈의 발전 과정을 더 많이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기사건수 또한 <한겨레>가 <조선일보>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조선일보>에서 기획/연재기사와 사설, 칼럼 등의 기사 유형이 더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선일보>가 사드에 대한 자사의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밝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신문사별 기사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기사유형	스트레이트	빈도	318	389	707	
		신문사중%	49.0%	56.1%	52.7%	
	해설	빈도	128	182	310	
		신문사중%	19.7%	26.3%	23.1%	
	기획/연재	빈도	48	19	67	
		신문사중%	7.4%	2.7%	5.0%	
	사설	빈도	74	69	143	
		신문사중%	11.4%	10.0%	10.7%	
	칼럼	빈도	57	27	84	
		신문사중%	8.8%	3.9%	6.3%	
	인터뷰	빈도	19	7	26	
		신문사중%	2.9%	1.0%	1.9%	
	독자투고	빈도	5	0	5	
		신문사중%	.8%	.0%	.4%	
	전체		빈도	649	693	1342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49.127$ df=6 p=.000

(2) 신문사별 정보원

① 신문사별 주 정보원의 국적

사드와 관련한 정보원의 국적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기타 등 7개로 구분하였다. 기타에는 유엔, 영국, 독일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표 5>를 살펴보면, 정보원은 총 1,219번 등장하였다. 그 가운데 한국 정보원(64.8%, 790건)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15.0%, 183건), 중국(13.9%, 170건), 북한(2.6%, 32건), 기타(1.6%, 20건), 일본(1.1%, 14건), 러시아(0.8%,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의 정보원이 많은 이유는 사드가 한국에서 배치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비율이 높은 것은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신문사별 주 정보원의 국적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주 정보원의 국적	한국	빈도	351	439	790
		신문사중%	61.7%	67.5%	64.8%
	미국	빈도	96	87	183
		신문사중%	16.9%	13.4%	15.0%
	중국	빈도	90	80	170
		신문사중%	15.8%	12.3%	13.9%
	일본	빈도	5	9	14
		신문사중%	.9%	1.4%	1.1%
	러시아	빈도	5	5	10
		신문사중%	.9%	.8%	.8%
	북한	빈도	14	18	32
		신문사중%	2.5%	2.8%	2.6%
	기타	빈도	8	12	20
		신문사중%	1.4%	1.8%	1.6%
전체		빈도	569	650	1219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7.929$ df=6 p=.243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한국(61.7%, 351건), 미국(16.9%, 96건), 중국(15.8%, 90

건), 북한(2.5%, 14건), 기타(1.4%, 8건), 러시아(0.9%, 5건), 일본(0.9%,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에서는 한국(67.5%, 439건), 미국(13.4%, 87건), 중국(12.3%, 80건), 북한(2.8%, 18건), 기타(1.8%, 12건), 일본(1.4%, 9건), 러시아(0.8%,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국 정보원은 <한겨레>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고, 미국과 중국 정보원은 <조선일보>에서 더 많이 등장하였다. 일본 정보원의 경우는 <한겨레>에서 더 많이 활용되었고, 나머지 나라들의 정보원은 두 개 신문사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② 신문사별 주 정보원 유형

정보원 유형은 정부 관련 정보원(39.0%, 475건)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회/정치인(21.2%, 259건), 국방부(14.8%, 180건), 언론(7.7%, 94건), 전문가(5.3%, 65건), 시민단체(3.4%, 41건), 일반인(3.0%, 37건), 기업(2.2%, 27건), 익명(2.1%, 26건), 경찰·법조(0.7%, 8건), 기타(0.6%,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정부(39.7%, 226건), 국회/정치인(23.0%, 131건), 국방부(13.9%, 79건), 전문가(7.2%, 41건), 언론(6.2%, 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정보원 유형은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 반면, <한겨레>의 경우에는 정부(38.3%, 249건), 국회/정치인(19.7%, 131건), 국방부(13.9%, 101건), 언론(9.1%, 59건), 시민단체(5.2%, 34건), 일반인(4.6%, 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유형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특히 <조선일보>와 달리 <한겨레>에서는 정보원 유형 가운데 전문가보다 언론이 더 많이 등장하였다. 또한 시민단체와 일반인의 경우에도 신문사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6. 신문사별 주 정보원 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주 정보원 유형	정부	빈도	226	249	475
		신문사중%	39.7%	38.3%	39.0%
	국방부	빈도	79	101	180
		신문사중%	13.9%	15.5%	14.8%
	국회/정치인	빈도	131	128	259
		신문사중%	23.0%	19.7%	21.2%
	기업	빈도	19	8	27
		신문사중%	3.3%	1.2%	2.2%
	언론	빈도	35	59	94
		신문사중%	6.2%	9.1%	7.7%
	전문가	빈도	41	24	65
		신문사중%	7.2%	3.7%	5.3%
	시민단체	빈도	7	34	41
		신문사중%	1.2%	5.2%	3.4%
	일반인	빈도	7	30	37
		신문사중%	1.2%	4.6%	3.0%
	익명(소식통)	빈도	20	6	26
		신문사중%	3.5%	.9%	2.1%
	경찰·법조	빈도	2	6	8
		신문사중%	.4%	.9%	.7%
기타	빈도	2	5	7	
	신문사중%	.4%	.8%	.6%	
전체		빈도	569	650	1219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56.662$ $df=10$ $p=.000$

② 신문사별 부 정보원의 국적

부 정보원의 국적은 전체적으로 한국(68.3%, 458건), 중국(13.7%, 92건), 미국(11.3%, 76건), 기타(1.9%, 13건), 북한(1.9%, 13건), 일본(1.8%, 12건), 러시아(1.0%,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한국(71.9%, 228건), 중국(13.2%, 42건), 미국(10.7%, 34건), 기타(1.6%, 5건), 북한(1.6%, 5건), 일본(0.9%,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러시아 정보원은 등장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한국(65.0%, 230건), 중국(14.1%, 50건), 미국(11.9%, 42건), 일본(2.5%, 9건), 북한(2.3%, 8건), 기타(2.3%, 8건), 러시아(2.0%,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7. 신문사별 부 정보원의 국적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부정보원 국적	한국	빈도	228	230	458
		신문사중%	71.9%	65.0%	68.3%
	미국	빈도	34	42	76
		신문사중%	10.7%	11.9%	11.3%
	중국	빈도	42	50	92
		신문사중%	13.2%	14.1%	13.7%
	일본	빈도	3	9	12
		신문사중%	.9%	2.5%	1.8%
	러시아	빈도	0	7	7
		신문사중%	.0%	2.0%	1.0%
	북한	빈도	5	8	13
		신문사중%	1.6%	2.3%	1.9%
	기타	빈도	5	8	13
		신문사중%	1.6%	2.3%	1.9%
전체		빈도	317	354	671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10.924$ df=6 p=.091

③ 신문사별 부 정보원 유형

부 정보원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정부(33.7%, 226건), 국회/정치인(22.4%, 150건), 국방부(13.3%, 89건), 언론(9.5%, 64건), 전문가(8.6%, 58건), 시민단체(3.6%, 24건), 일반인(3.6%, 24건), 익명(3.3%, 22건), 기업(1.2%, 8건), 기타(0.6%, 4건), 경찰·법조(0.3%,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정부(31.5%, 100건), 국회/정치인(26.5%, 84건), 국방부(13.9%, 44건), 언론(9.8%, 31건), 전문가(7.9%, 25건), 익명(6.6%, 21건), 일반인(1.9%, 6건), 기업(1.3%, 4건), 시민단체(0.6%,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와 경찰·법조는 등장하지 않았다. 〈한겨레〉에서는 정부 관련 정보원(35.6%, 126건)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이어 국회/정치인(18.6%, 66건), 국방부(12.7%, 45건), 언론(9.3%, 33건), 전문가(9.3%, 33건), 시민단체(6.2%, 22건), 일반인(5.1%, 18건), 기업(1.1%, 4건), 기타(1.1%, 4건), 경찰·법조(0.6%, 2건), 익명(0.3%,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두 개 신문사의 부 정보원 유형은 주 정보원의 유형에서와 같이 시민단체와 일반인은 <한겨레>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나머지 정보원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신문사별 부 정보원 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부 정보원 유형	정부	빈도	100	126	226
		신문사중%	31.5%	35.6%	33.7%
	국방부	빈도	44	45	89
		신문사중%	13.9%	12.7%	13.3%
	국회/정치인	빈도	84	66	150
		신문사중%	26.5%	18.6%	22.4%
	기업	빈도	4	4	8
		신문사중%	1.3%	1.1%	1.2%
	언론	빈도	31	33	64
		신문사중%	9.8%	9.3%	9.5%
	전문가	빈도	25	33	58
		신문사중%	7.9%	9.3%	8.6%
	시민단체	빈도	2	22	24
		신문사중%	.6%	6.2%	3.6%
	일반인	빈도	6	18	24
		신문사중%	1.9%	5.1%	3.6%
	익명(소식통)	빈도	21	1	22
		신문사중%	6.6%	.3%	3.3%
	경찰·법조	빈도	0	2	2
		신문사중%	.0%	.6%	.3%
기타	빈도	0	4	4	
	신문사중%	.0%	1.1%	.6%	
전체		빈도	317	354	671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51.293$ $df=10$ $p=.000$

④ 신문사별 정보원의 국적(복수집계)

신문사별 정보원의 국적(복수집계)은 전체적으로 한국 정보원(66.0%, 1248건)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이어 중국(13.9%, 262건), 미국(13.7%, 259건), 북한(2.4%, 45건), 기타(1.7%, 33건), 일본(1.4%, 26건), 러시아(0.9%, 17건) 순으로 확인되었고, 전체 1890건이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한국(65.3%, 579건), 중국(14.9%, 132건), 미국(14.7%, 130건), 북한(2.1%, 19건), 기타(0.7%, 13건), 일본(0.9%, 8건), 러시아(0.6%, 5건)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겨레〉에서는 한국 정보원(66.6%, 669건)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12.9%, 130건), 미국(12.8%, 129건), 북한(2.6%, 26건), 기타(2.0%, 20건), 일본(1.8%, 18건), 러시아(1.2%,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전체 정보원 수는 〈조선일보〉(46.9%, 996건)보다 〈한겨레〉(53.1%, 1004건)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정보원의 경우에는 신문사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신문사별 정보원의 국적(복수집계)

구분		신문사		합계	
		조선일보	한겨레		
부정보원 국적	한국	총계	579	669	1248
		신문사중%	65.3%	66.6%	
		전체중%	30.6%	35.4%	66.0%
	미국	총계	130	129	259
		신문사중%	14.7%	12.8%	
		전체중%	6.9%	6.8%	13.7%
	중국	총계	132	130	262
		신문사중%	14.9%	12.9%	
		전체중%	7.0%	6.9%	13.9%
	일본	총계	8	18	26
		신문사중%	.9%	1.8%	
		전체중%	.4%	1.0%	1.4%
	러시아	총계	5	12	17
		신문사중%	.6%	1.2%	
		전체중%	.3%	.6%	.9%
	북한	총계	19	26	45
		신문사중%	2.1%	2.6%	
		전체중%	1.0%	1.4%	2.4%
기타	총계	13	20	33	
	신문사중%	1.5%	2.0%		
	전체중%	.7%	1.1%	1.7%	
합계		총계	886	1004	1890
		전체중%	46.9%	53.1%	100.0%

⑤ 신문사별 정보원 유형(복수집계)

정보원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정부 관련 정보원(37.1%, 701건)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이어 국회/정치인(21.6%, 409건), 국방부(14.2%, 269건), 언론(8.4%, 158건), 전문가(6.5%, 123건), 시민단체(3.4%, 65건), 일반인(3.2%, 61건), 익명(2.5%, 48건), 기업(1.9%, 35건), 기타(0.6%, 11건), 경찰·법조(0.5%,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정부(36.8%, 326건), 국회/정치인(24.3%, 215건), 국방부(13.9%, 123건), 전문가(7.4%, 66건), 언론(7.4%, 66건), 익명(4.6%, 41건), 기업(1.2%, 23건), 일반인(1.5%, 13건), 시민단체(1.0%, 9건), 기타(0.2%, 2건), 경찰·법조(0.2%, 2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겨레〉는 정부 관련 정보원(37.4%, 375건)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다음으로 국회/정치인(19.3%, 194건), 국방부(14.5%, 146건), 언론(9.2%, 92건), 전문가(5.7%, 57건), 시민단체(5.6%, 56건), 일반인(4.8%, 48건), 기업(1.2%, 12건), 기타(0.9%, 9건), 경찰·법조(0.8%, 8건), 익명(0.7%, 7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두 개 신문사 모두에서 정부, 국방부, 국회/정치인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한 반면, 시민단체와 일반인 정보원은 〈한겨레〉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신문사별 정보원 유형(복수집계)

구분		신문사		합계	
		조선일보	한겨레		
정보원유형(복수 집계)	정부	총계	326	375	701
		신문사중%	36.8%	37.4%	
		전체중%	17.2%	19.8%	37.1%
	국방부	총계	123	146	269
		신문사중%	13.9%	14.5%	
		전체중%	6.5%	7.7%	14.2%
	국회/정치인	총계	215	194	409
		신문사중%	24.3%	19.3%	
		전체중%	11.4%	10.3%	21.6%
	기업	총계	23	12	35

		신문사중%	2.6%	1.2%	
		전체중%	1.2%	.6%	1.9%
	언론	총계	66	92	158
		신문사중%	7.4%	9.2%	
		전체중%	3.5%	4.9%	8.4%
		총계	66	57	123
	전문가	신문사중%	7.4%	5.7%	
		전체중%	3.5%	3.0%	6.5%
		총계	9	56	65
		신문사중%	1.0%	5.6%	
	시민단체	전체중%	.5%	3.0%	3.4%
		총계	13	48	61
		신문사중%	1.5%	4.8%	
	일반인	전체중%	.7%	2.5%	3.2%
		총계	41	7	48
		신문사중%	4.6%	.7%	
	익명(소식통)	전체중%	2.2%	.4%	2.5%
		총계	2	8	10
		신문사중%	.2%	.8%	
	경찰·법조	전체중%	.1%	.4%	.5%
		총계	2	9	11
		신문사중%	.2%	.9%	
	기타	전체중%	.1%	.5%	.6%
		총계	886	1004	1890
전체중%		46.9%	53.1%	100.0%	

(3) 신문사별 프레임 유형

① 신문사별 주 프레임 유형

전체적으로는 ‘신 냉전 프레임(25.0%, 336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였다. 다음으로 ‘정치 갈등 프레임(24.0%, 322건)’, ‘북한위협 프레임(9.9%, 133건)’, ‘사드 사양 프레임(8.7%, 117건)’,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8.6%, 116건)’, ‘안보 프레임(6.9%, 92건)’, ‘패권주의 프레임(6.5%, 87건)’, ‘한미동맹 프레임(3.9%, 53건)’, ‘경제 프레임(3.8%, 51건)’, ‘기타 프레임(2.6%, 35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일보〉에서는 ‘정치 갈등 프레임(23.4%, 152건)’과 ‘신 냉전 프레임(21.1%, 137건)’이 높게 나타났고, 이어 ‘북한위협 프레임(12.2%, 79건)’, ‘사드 사양 프레임(11.1%, 72건)’, ‘안보 프레임(8.3%, 54건)’, ‘패권주의 프레임(8.2%, 53건)’, ‘한미동맹 프레임(6.0%, 439건)’, ‘경제 프레임(3.5%, 23건)’,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3.2%, 21건)’, ‘기타 프레임(2.9%,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의 경우에는

‘신 냉전 프레임(28.7%, 199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정치 갈등 프레임(24.5%, 170건)’이 높게 확인되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13.7%, 95건)’, ‘북한위협 프레임(7.8%, 54건)’, ‘사드 사양 프레임(6.5%, 45건)’, ‘안보 프레임(5.5%, 38건)’, ‘패권주의 프레임(4.9%, 34건)’, ‘경제 프레임(4.0%, 28건)’, ‘기타 프레임(2.3%, 16건)’, ‘한미 동맹 프레임(2.0%, 14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1. 신문사별 주 프레임 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주 프레임	안보	빈도	54	38	92
		신문사중%	8.3%	5.5%	6.9%
	신 냉전	빈도	137	199	336
		신문사중%	21.1%	28.7%	25.0%
	북한위협	빈도	79	54	133
		신문사중%	12.2%	7.8%	9.9%
	패권주의	빈도	53	34	87
		신문사중%	8.2%	4.9%	6.5%
	풀뿌리민주주의	빈도	21	95	116
		신문사중%	3.2%	13.7%	8.6%
	정치 갈등	빈도	152	170	322
		신문사중%	23.4%	24.5%	24.0%
	경제	빈도	23	28	51
		신문사중%	3.5%	4.0%	3.8%
	사드사양	빈도	72	45	117
		신문사중%	11.1%	6.5%	8.7%
	한미동맹	빈도	39	14	53
		신문사중%	6.0%	2.0%	3.9%
기타	빈도	19	16	35	
	신문사중%	2.9%	2.3%	2.6%	
전체		빈도	649	693	1342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88.708$ df=9 p=.000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의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겨레>는 ‘신 냉전 프레임’을 더욱 강조하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북한 위협 프레임’과 ‘한미동맹 프레임’을 더욱 강조했다. 나머지 프레임 유형에서는 두 신문사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사드와 관련하여 두 신문사 간 가장 큰 이슈는 ‘신 냉전’과 ‘정치 갈등’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북한위

협'을 많이 강조한 반면, <한겨레>는 국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패권주의 프레임'의 경우에는 <조선일보>는 주로 '중국 패권'에 대해 많이 보도하였고, <한겨레>는 '미국 패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신문사별 부 프레임 유형

먼저 전체 부 프레임을 살펴보면, 주 프레임과 달리 '안보 프레임(32.3%, 294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신 냉전 프레임(23.7%, 216건)', '북한 위협 프레임(15.6%, 142건)', '패권주의 프레임(5.5%, 50건)', '경제 프레임(5.5%, 50건)', '사드사양 프레임(4.8%, 44건)', '정치 갈등 프레임(4.2%, 38건)', '한미동맹 프레임(4.2%, 38건)', '기타 프레임(0.8%, 7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안보 프레임(37.2%, 162건)', '신 냉전 프레임(20.0%, 87건)', '북한위협 프레임(17.4%, 76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프레임 유형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겨레>를 살펴보면, <조선일보>와 같이 '안보 프레임(27.8%, 132건)', '신 냉전 프레임(27.2%, 129건)', '북한위협 프레임(13.9%, 66건)'의 비율이 높고 나머지 프레임의 유형은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 또한 <한겨레>에서는 '기타 프레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부 프레임을 비교하면, 주 프레임 가운데 '신 냉전 프레임'이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부 프레임은 안보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 프레임보다 부 프레임에서 '북한위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났고, '정치 갈등'과 '사드 사양'에 대한 내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한미동맹 등의 프레임은 주·부 프레임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프레임 유형은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간 명확한 차이가 드러났다. 보수신문에서는 국가의 안보문제와 북한에 대한 응대 문제에 대한 보도 비중이 높았던 반면, 진보신문에서는 국민의 반응과 아시아의 질서 등에 대해 주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수신문은 정부의 제안을 그대로 따르며 된다는 태도를 보였던 반면, 진보신문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상적인 세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표 12. 신문사별 부 프레임 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부 프레임	안보	빈도	162	132	294
		신문사중%	37.2%	27.8%	32.3%
	신 냉전	빈도	87	129	216
		신문사중%	20.0%	27.2%	23.7%
	북한위협	빈도	76	66	142
		신문사중%	17.4%	13.9%	15.6%
	패권주의	빈도	12	38	50
		신문사중%	2.8%	8.0%	5.5%
	풀뿌리민주주의	빈도	14	18	32
		신문사중%	3.2%	3.8%	3.5%
	정치 갈등	빈도	17	21	38
		신문사중%	3.9%	4.4%	4.2%
	경제	빈도	18	32	50
		신문사중%	4.1%	6.7%	5.5%
	사드사양	빈도	21	23	44
		신문사중%	4.8%	4.8%	4.8%
	한미동맹	빈도	22	16	38
		신문사중%	5.0%	3.4%	4.2%
	기타	빈도	7	0	7
		신문사중%	1.6%	.0%	.8%
전체		빈도	436	475	911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36.729$ df=9 p=.000

③ 신문사별 프레임 유형(복수집계)

프레임 유형(복수집계)을 살펴보면, ‘신 냉전 프레임(24.5%, 552건)’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사드 배치가 아시아 관계 심지어 전 세계의 질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안보 프레임(17.1%, 386건)’은 두 번째로 등장한 프레임으로, 한국의 국가안전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 국내 정치 갈등(16.0%, 360건)이 심한 것도 확인되었고, 북한의 위협(12.2%, 275건)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어 ‘사드 사양 프레임(7.1%, 161건)’,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6.6%, 148건)’, ‘패권주의 프레임(6.1%, 137건)’, ‘경제 프레임(4.5%, 101건)’, ‘한미 동맹 프레임(4.0%, 91건)’, ‘기타 프레임(1.9%, 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신 냉전 프레임(20.6%, 224건)’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어 ‘안보 프레임(19.9%, 216건)’, ‘정치 프레임(15.6%, 169건)’, ‘북한위협 프레임

(14.3%, 155건)’을 강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사드 사냥 프레임(8.6%, 93건)’, ‘패권주의 프레임(6.0%, 65건)’, ‘한미동맹 프레임(5.6%, 61건)’, ‘경제 프레임(3.8%, 41건)’,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3.2%, 35건)’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신문사별 프레임 유형(복수집계)

구분		신문사		합계	
		조선일보	한겨레		
프레임유형 (복수집계)	안보	총계	216	170	386
		신문사중%	19.9%	14.6%	
		전체중%	9.6%	7.5%	17.1%
	신 냉전	총계	224	328	552
		신문사중%	20.6%	28.1%	
		전체중%	9.9%	14.6%	24.5%
	북한위협	총계	155	120	275
		신문사중%	14.3%	10.3%	
		전체중%	6.9%	5.3%	12.2%
	패권주의	총계	65	72	137
		신문사중%	6.0%	6.2%	
		전체중%	2.9%	3.2%	6.1%
	풀뿌리민주주의	총계	35	113	148
		신문사중%	3.2%	9.7%	
		전체중%	1.6%	5.0%	6.6%
	정치 갈등	총계	169	191	360
		신문사중%	15.6%	16.4%	
		전체중%	7.5%	8.5%	16.0%
	경제	총계	41	60	101
		신문사중%	3.8%	5.1%	
		전체중%	1.8%	2.7%	4.5%
	사드사냥	총계	93	68	161
		신문사중%	8.6%	5.8%	
		전체중%	4.1%	3.0%	7.1%
한미동맹	총계	61	30	91	
	신문사중%	5.6%	2.6%		
	전체중%	2.7%	1.3%	4.0%	
기타	총계	26	16	42	
	신문사중%	2.4%	1.4%		
	전체중%	1.2%	.7%	1.9%	
합계		총계	1085	1168	2253
		전체중%	48.2%	51.8%	100.0%

<한겨레>의 경우에도 ‘신 냉전 프레임28.1% , 328건’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치 갈등 프레임(16.4%, 191건)’, ‘안보 프레임(14.6%, 170건)’, ‘북한위협 프레임(10.3%, 120건)’,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9.7%, 113건)’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패권주의 프레임(6.2%, 72건)’, ‘사드 사양 프레임(5.8%, 68건)’, ‘경제 프레임(5.1%, 60건)’, ‘한미동맹 프레임(2.6%, 30건)’, ‘기타 프레임(1.4%, 16건)’ 등의 프레임 유형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개 신문사를 비교해 보면, <조선일보>는 <한겨레>보다 안보문제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겨레>는 비교적 여론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권주의 프레임’에서 두 신문 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언론 및 경제보복을 통한 한국 협박을 비판하였고, <한겨레>는 미군의 아시아 관계 악화에 대한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신문사별 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

보도태도는 전체적으로 중립(43.6%, 99건)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찬성(28.6%, 65건)과 반대(26.8%, 63건)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4. 신문사별 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보도태도	찬성	빈도	65	0	65
		신문사중%	49.6%	.0%	28.6%
	중립	빈도	65	34	99
		신문사중%	49.6%	35.4%	43.6%
	반대	빈도	1	62	63
		신문사중%	.8%	64.6%	27.8%
전체		빈도	131	96	227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131.500$ df=2 p=.000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중립과 찬성이 각각 49.6%(65건)으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반대 기사는 한 건밖에 없었다. 반면, <한겨레>는 반대(64.6%, 62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중립(35.4%, 34건)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찬성하는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조선일보>는 주로 정부의 시각을 많이 보도하였고, <한겨레>는 여론을 비교적 많이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사드 관련 보도의 시기별 특성

(1) 시기별 신문사별 보도 량

보도 량은 <조선일보> 649건, <한겨레> 693건으로 나타나 비율상 신문사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1단계는 259건(19.3%), 2단계는 310건(23.1%), 3단계는 773건(57.6%)으로 시기별 보도 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사드 배치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된 3단계 이후 한국국민과 주변국의 태도가 강하게 드러나면서 보도 량 또한 증가되었다.

표 15. 시기별 신문사의 보도건수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시기	1기	빈도	163	96	259
		신문사중%	25.1%	13.9%	19.3%
	2기	빈도	158	152	310
		신문사중%	24.3%	21.9%	23.1%
	3기	빈도	328	445	773
		신문사중%	50.5%	64.2%	57.6%
전체		빈도	649	693	1342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33.751$ $df=2$ $p=.000$

신문별 보도 량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시기별로 각각 163건(25.1%), 158건(24.2%), 328건(50.5%)으로 확인되었다. 1, 2단계의 보도 량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3단계는 보도 량은 급증했다. <한겨레>의 경우에도 1단계 96건

(13.9%), 2단계 152건(21.9%), 3단계 445건(64.2%) 등 시기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 신문사를 비교해 보면, 1단계는 <한겨레>보다 <조선일보>의 보도량이 더 많았고, 3단계는 <조선일보>보다 <한겨레>의 건수가 더 많았으며, 2단계에서는 두 개 신문사의 보도량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1단계에는 <한겨레>보다 <조선일보>가 사드 관련 이슈를 더 많이 주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3단계는 <한겨레>가 더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기별 신문사별 기사유형

① 1단계 신문사별 기사유형

1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41.3%, 107건)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어 해설기사(23.9%, 62건), 사설, 기획/연재기사(12.4%, 32건), 칼럼(8.9%, 23건), 인터뷰(2.7%, 7건), 독자투고(1.2%, 3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기사(38.0%, 62건), 해설기사(20.9%, 34건), 기획/연재기사(13.5%, 22건), 칼럼(11.7%, 19건), 사설(10.4%, 17건), 인터뷰(3.7%, 6건), 독자투고(1.8%, 3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겨레>는 스트레이트 기사(46.9%, 45건), 해설기사(29.2%, 28건), 사설(15.6%, 15건), 칼럼(4.2%, 4건), 기획/연재기사(3.1%, 3건), 인터뷰(1.0%,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개 신문사의 1단계 기사유형을 살펴보면, 전체건수는 <한겨레>보다 <조선일보>가 2배 이상 많았고, 기획/연재기사도 두 개 신문사 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비율에서도 스트레이트, 해설기사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칼럼은 <조선일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겨레>의 경우에는 독자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조선일보>가 사드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기사건수의 차이도 불구하고, 기획/연재기사, 칼럼의 차이가 매우 크

계 나타났다.

표 16. 1단계 신문사별 기사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1단계	기사유형	스트레이트	빈도	62	45	107		
			신문사중%	38.0%	46.9%	41.3%		
		해설	빈도	34	28	62		
			신문사중%	20.9%	29.2%	23.9%		
		기획/연재	빈도	22	3	25		
			신문사중%	13.5%	3.1%	9.7%		
		사설	빈도	17	15	32		
			신문사중%	10.4%	15.6%	12.4%		
		칼럼	빈도	19	4	23		
			신문사중%	11.7%	4.2%	8.9%		
		인터뷰	빈도	6	1	7		
			신문사중%	3.7%	1.0%	2.7%		
		독자투고	빈도	3	0	3		
			신문사중%	1.8%	.0%	1.2%		
		전체			빈도	163	96	259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18.078$ df=6 p=.006

② 2단계 신문사별 기사유형

2단계의 경우에는 1단계와 큰 차이 없이 스트레이트 기사(47.7%, 147건), 해설기사(24.5%, 76건), 사설(13.2%, 41건), 칼럼(6.8%, 21건), 인터뷰(4.2%, 13건), 기획/연재기사(3.5%, 11건), 독자투고(0.3%, 1건)의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이 시기에 기획/연재기사의 건수가 적어지고 대신에 사설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기사(43.7%, 69건), 해설기사(20.3%, 32건), 사설(13.3%, 21건), 칼럼(9.5%, 15건), 기획/연재기사(5.7%, 9건), 인터뷰(7.0%, 11건), 독자투고(0.6%, 1건)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겨레〉는 스트레이트 기사(51.3%, 78건), 해설기사(28.9%, 44건), 사설(13.2%, 20건), 칼럼(3.9%, 6건), 기획/연재기사(1.3%, 2건), 인터뷰(1.3%, 2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단계보다 2단계에서 <한겨레>의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는 <조선일보>보다 많은 것이 확인되었고, 독자투고는 1단계와 같이 <한겨레>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획/연재기사와 칼럼은 <한겨레>보다 <조선일보>에서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2단계에서의 <한겨레>의 보도건수가 1단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아 사드에 대한 주목도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겨레>가 주로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 위주로 보도했던 반면, 기획/연재기사와 칼럼기사의 건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2단계에서는 <한겨레>보다 <조선일보>에서의 기사유형이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2단계 신문사별 기사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2단계	기사유형	스트레이트	빈도	69	78	147	
			신문사중%	43.7%	51.3%	47.4%	
		해설	빈도	32	44	76	
			신문사중%	20.3%	28.9%	24.5%	
		기획/연재	빈도	9	2	11	
			신문사중%	5.7%	1.3%	3.5%	
		사설	빈도	21	20	41	
			신문사중%	13.3%	13.2%	13.2%	
	칼럼	빈도	15	6	21		
		신문사중%	9.5%	3.9%	6.8%		
	인터뷰	빈도	11	2	13		
		신문사중%	7.0%	1.3%	4.2%		
	독자투고	빈도	1	0	1		
		신문사중%	.6%	.0%	.3%		
	전체			빈도	158	152	310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17.903$ df=6 p=.006

③ 3단계 신문사별 기사유형

3단계의 기사 건수는 1, 2단계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데 스트레이트 기사(58.6%, 453건)와 해설기사(22.3%, 172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였고, 이어 사설(9.1%, 70건), 칼럼(5.2%, 40건), 기획연재(4.0%, 31건), 인터뷰(0.8%, 6건), 독자투고(0.1%, 1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스트레이트(57.0%, 187건), 해설(18.9%, 62건), 사설(11.0%, 36건), 칼럼(7.0%, 23건), 기획/연재(5.2%, 17건), 인터뷰(0.6%, 2건), 독자투고(0.3%, 1건) 등의 순서로 확인되었고, 〈한겨레〉는 스트레이트(59.8%, 266건), 해설(24.7%, 110건), 사설(7.6%, 34건), 칼럼(3.8%, 17건), 기획/연재(3.1%, 14건), 인터뷰(0.9%, 4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8. 3단계 신문사별 기사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3단계	기사유형	스트레이트	빈도	187	266	453
			신문사중%	57.0%	59.8%	58.6%
		해설	빈도	62	110	172
			신문사중%	18.9%	24.7%	22.3%
		기획/연재	빈도	17	14	31
			신문사중%	5.2%	3.1%	4.0%
		사설	빈도	36	34	70
			신문사중%	11.0%	7.6%	9.1%
		칼럼	빈도	23	17	40
			신문사중%	7.0%	3.8%	5.2%
		인터뷰	빈도	2	4	6
			신문사중%	.6%	.9%	.8%
		독자투고	빈도	1	0	1
			신문사중%	.3%	.0%	.1%
전체			빈도	328	445	773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12.668$ df=6 p=.049

3단계에서 〈한겨레〉의 건수는 〈조선일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겨레〉의 경우에는 스트레이트와 해설이 2단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사설도 1, 2단계보다 많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1, 2, 3단계 전체로 보면 〈한

겨레》에서는 사드 관련 독자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기사유형은 시기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기획/연재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고, 사실과 칼럼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기마다 기획/연재가 〈한겨레〉보다 〈조선일보〉에서 많은 것이 확인되었고, 〈한겨레〉는 주로 스트레이트와 해설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 2단계 보다 〈한겨레〉의 기획/연재와 칼럼의 건수가 많아졌고, 〈조선일보〉보다는 조금 적지만 1, 2단계처럼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시기별 신문사별 정보원 유형

① 1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의 국적

1단계의 주 정보원의 국가는 두 개 신문사 모두 한국(45.7%, 105건)과 관련 정보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어 미국(36.5%, 84건)과 중국(12.2%, 28건)의 정보원이 많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한국(47.6%, 68건), 미국(32.9%, 47건), 중국(15.4%, 22건)의 정보원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1.4%, 2건), 러시아(1.4%, 2건), 북한(0.7%, 1건), 기타(0.7%, 1건)는 5건 이내로 확인되었다. 〈한겨레〉는 한국(42.5%, 37건), 미국(42.5%, 37건)의 비율이 가장 높고, 중국(6.9%, 6건)의 정보원은 3번째 많이 등장한 정보원이었지만 그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또한 북한(4.6%, 4건), 기타(2.3%, 2건), 러시아(1.1%, 1건) 등은 많이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겨레〉는 이 시기에 일본 관련 정보원이 등장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 초기에 두 개 신문사 모두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을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겨레〉의 경우, 1단계에서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비율로 보면 〈조선일보〉보다 미국의 정보원을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관련 정

보원은 <한겨레>보다 <조선일보>에서 더 많이 등장한 것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국가는 그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1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의 국적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1단계	주정보원 국적	한국	빈도	68	37	105
			신문사중%	47.6%	42.5%	45.7%
		미국	빈도	47	37	84
			신문사중%	32.9%	42.5%	36.5%
		중국	빈도	22	6	28
			신문사중%	15.4%	6.9%	12.2%
		일본	빈도	2	0	2
			신문사중%	1.4%	.0%	.9%
		러시아	빈도	2	1	3
			신문사중%	1.4%	1.1%	1.3%
		북한	빈도	1	4	5
			신문사중%	.7%	4.6%	2.2%
		기타	빈도	1	2	3
			신문사중%	.7%	2.3%	1.3%
전체			빈도	143	87	230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10.968$ df=6 p=.089

② 2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의 국적

2단계의 경우에는 1단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미국 정보원보다 중국 정보원이 더 많이 등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52%, 142건), 중국(23.1%, 63건), 미국(16.5%, 45건), 기타(2.9%, 8건), 북한(2.6%, 7건), 러시아(2.2%, 6건), 일본(0.7%, 2건) 등의 순으로 타나났다.

그 가운데 <조선일보>에서는 한국(50.0%, 68건), 중국(24.3%, 33건), 미국(18.4%, 25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타(3.7%, 5건), 북한(1.5%, 2건), 러시아(1.5%, 2건), 일본(0.7%, 1건)의 정보원은 1단계와 비교하면 차이가 났지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도 한국(54.0%, 74건), 중국(21.9%, 30건), 미국(14.6%,

20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북한(3.6%, 5건), 러시아(2.9%, 4건), 기타(2.2%, 3건), 일본(0.7%, 1건)의 정보원 비율은 1단계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부터 미국 정보원보다 중국 정보원이 더 많이 등장하였으며, 중국의 외교부 부장 왕이(王毅)와 중국 6자회담에서 우따웨이(武大伟)가 중국을 대표하여 사드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한·중, 중·미, 한·미 간 서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 1단계와 달리 중국과 미국 정보원의 등장 비율에서 차이가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에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하면서 유엔도 1단계보다 많이 등장했다.

표 20. 2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의 국적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2단계	주 정보원 국적	한국	빈도	68	74	142
			신문사중%	50.0%	54.0%	52.0%
		미국	빈도	25	20	45
			신문사중%	18.4%	14.6%	16.5%
		중국	빈도	33	30	63
			신문사중%	24.3%	21.9%	23.1%
		일본	빈도	1	1	2
			신문사중%	.7%	.7%	.7%
		러시아	빈도	2	4	6
			신문사중%	1.5%	2.9%	2.2%
		북한	빈도	2	5	7
			신문사중%	1.5%	3.6%	2.6%
		기타	빈도	5	3	8
			신문사중%	3.7%	2.2%	2.9%
전체			빈도	136	137	273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3.401$ df=6 p=.757

③ 3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의 국적

3단계의 경우에는 두 개 신문사의 보도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원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한국(75.8%, 543건)의 정보원이 1, 2단계와 마찬가지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11.0%, 79건)의 정보원은 두 번째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고, 나머지는 미국(7.5%, 54건), 북한(2.8%, 20건), 일본(1.4%, 10건), 기타(1.3%, 9건), 러시아(0.1%, 1건)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표 21. 3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의 국적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3단계	주 정보원 국적	한국	빈도	215	328	543
			신문사중 %	74.1%	77.0%	75.8%
		미국	빈도	24	30	54
			신문사중 %	8.3%	7.0%	7.5%
		중국	빈도	35	44	79
			신문사중 %	12.1%	10.3%	11.0%
		일본	빈도	2	8	10
			신문사중 %	.7%	1.9%	1.4%
		러시아	빈도	1	0	1
			신문사중 %	.3%	.0%	.1%
		북한	빈도	11	9	20
			신문사중 %	3.8%	2.1%	2.8%
		기타	빈도	2	7	9
			신문사중 %	.7%	1.6%	1.3%
전체		빈도	290	426	716	
		신문사중 %	100.0%	100.0%	100.0%	

$\chi^2=7.213$ df=6 p=.302

〈조선일보〉는 한국(74.1%, 215건), 중국(12.1%, 35건), 미국(8.3%, 24건), 북한(3.8%, 11건), 기타(0.7%, 2건), 일본(0.7%, 2건), 러시아(0.3%, 1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한겨레〉는 한국(77.0%, 328건), 중국(10.3%, 44건), 미국(7.0%, 30건), 북한(2.1%, 9건), 일본(1.9%, 8건), 기타(1.6%,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한겨레>에서는 러시아 정보원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하고 5번째 핵실험도 실시했으며, 또한 북한이 사드에 대해 강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북한 정보원이 1, 2단계에 비해 많이 등장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G20 등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미 등 여러 나라의 정보원들이 상호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④ 1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 유형

<조선일보>의 경우, 정부(45.5%, 65건), 국방부(23.8%, 34건), 전문가(11.2%, 16건)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이어 국회/정치인(9.8%, 14건), 익명(4.9%, 7건), 언론(2.8%, 4건), 일반인(1.4%, 2건), 기업(0.7%, 1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겨레>는 정부(41.4%, 36건), 국방부(25.3%, 22건), 국회/정치인(10.3%, 9건), 언론(9.2%, 8건), 전문가(8.0%, 7건), 익명(3.4%, 3건), 일반인(1.1%, 1건), 시민단체(1.1%, 1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업 관련 정보원은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법조계, 기타, 관련 정보원은 두 개 신문사 모두에서 등장하지 않았다.

두 개 신문을 비교해 보면, 건수와 상관없이 비율상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한겨레>의 경우, 언론 정보원을 <조선일보>에 비해 3배 이상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수치로 볼 때, 1단계의 경우에는 정부 관련 정보원(43.9%, 101건)이 많이 등장하였고, 이어 국방부(24.3%, 56건), 국회/정치인(10.0%, 23건), 전문가(10.0%, 23건), 언론(5.2%, 12건), 익명(4.3%, 10건), 일반인(1.3%, 3건), 시민단체(0.4%, 1건), 기업(0.4%, 1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사드에 대해 처음 논의된 단계인 만큼 주로 정부와의 소통에 대한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당시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나 정치인들이 사드 이슈에 많이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익명 정보원이 많이 등장한 반면, 법조계와 기타는 등장하지 않았다.

표 22. 1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 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1단계	주 정보원 유형	정부	빈도	65	36	101		
			신문사중%	45.5%	41.4%	43.9%		
		국방부	빈도	34	22	56		
			신문사중%	23.8%	25.3%	24.3%		
		국회/정치인	빈도	14	9	23		
			신문사중%	9.8%	10.3%	10.0%		
		기업	빈도	1	0	1		
			신문사중%	.7%	.0%	.4%		
		언론	빈도	4	8	12		
			신문사중%	2.8%	9.2%	5.2%		
		전문가	빈도	16	7	23		
			신문사중%	11.2%	8.0%	10.0%		
		시민단체	빈도	0	1	1		
			신문사중%	.0%	1.1%	.4%		
		일반인	빈도	2	1	3		
			신문사중%	1.4%	1.1%	1.3%		
		익명(소식통)	빈도	7	3	10		
			신문사중%	4.9%	3.4%	4.3%		
		전체			빈도	143	87	230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7.589$ df=8 p=.475

⑤ 2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의 유형

2단계에서는 <조선일보>의 경우, 정부(50.0%, 68건), 국방부(19.1%, 26건), 국회/정치인(15.4%, 19건), 전문가(8.1%, 11건), 언론(3.7%, 5건), 익명(2.9%, 4건), 기타(0.7%, 1건), 경찰·법조(0.7%, 1건), 기업(0.7%, 1건)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겨레>는 정부(32.8%, 46건), 국방부(30.9%, 43건), 국회/정치인(14.6%, 20건), 언론(10.2%, 14건), 시민단체(5.8%, 8건), 전문가(2.9%, 4건), 기업(1.4%, 2건), 일반인(0.7%, 1건), 익명(0.7%, 1건) 등의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두 개의 신문사를 비교해 보면, 정부 관련 정보원이 많이 등장했지만, <한겨레>는 국방부 관련 정보원이 <조선일보>보다 더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는

〈조선일보〉에서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론 정보원은 〈조선일보〉보다 〈한겨레〉에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법조계, 기타 정보원은 〈한겨레〉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 한편, 〈조선일보〉에서는 시민단체와 관련한 정보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2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 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2단계	주 정보원 유형	정부	빈도	68	45	113
			신문사중%	50.0%	32.8%	41.4%
		국방부	빈도	26	43	69
			신문사중%	19.1%	31.4%	25.3%
		국회/정치인	빈도	19	20	39
			신문사중%	14.0%	14.6%	14.3%
		기업	빈도	1	1	2
			신문사중%	.7%	.7%	.7%
		언론	빈도	5	14	19
			신문사중%	3.7%	10.2%	7.0%
		전문가	빈도	11	4	15
			신문사중%	8.1%	2.9%	5.5%
		시민단체	빈도	0	8	8
			신문사중%	.0%	5.8%	2.9%
		일반인	빈도	0	1	1
			신문사중%	.0%	.7%	.4%
		익명(소식통)	빈도	4	1	5
			신문사중%	2.9%	.7%	1.8%
		경찰·법조	빈도	1	0	1
			신문사중%	.7%	.0%	.4%
기타	빈도	1	0	1		
	신문사중%	.7%	.0%	.4%		
전체		빈도	136	137	273	
		신문사중%	100.0%	100.0%	100.0%	

$x^2=29.222$ $df=10$ $p=.001$

2단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와 같이 정부 정보원(41.4%, 113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방부(25.3%, 69건)와 국회/정치인(14.3%, 39건)은 2, 3번째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언론(7.0%, 29건), 전문가(5.5%, 15건), 시민단체(2.9%, 8건),

익명(1.8%, 5건), 기업(0.7%, 2건), 일반인(0.4%, 1건), 기타(0.4%, 1건), 경찰·법조(0.4%, 1건) 등의 순서로 높게 확인되었다. 북한이 ‘광명성 4호’ 발사를 계기로 한국 국내의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언론들의 보도 량도 증가했다. 다른 정보원들은 1단계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⑥ 3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 유형

3단계에서는 <조선일보>의 경우, 국회/정치인(33.8%, 98건), 정부(32.1%, 93건), 언론(9.0%, 26건), 국방부(6.6%, 19건), 기업(5.9%, 17건), 전문가(4.8%, 14건), 익명(3.1%, 9건), 시민단체(2.4%, 7건), 일반인(1.7%, 5건), 경찰·법조(0.3%, 1건), 기타(0.3%, 1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겨레>에서는 정부(39.4%, 168건), 국회/정치인(23.2%, 99건), 언론(8.7%, 31건), 국방부(8.5%, 36건), 일반인(6.6%, 28건), 시민단체(5.9%, 25건), 전문가(3.1%, 13건), 기업(1.6%, 7건), 경찰·법조(1.4%, 6건), 기타(1.2%, 5건), 익명(0.5%, 2건)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수치를 볼 때, 정부 정보원(36.5%, 261건)이 앞의 1, 2단계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등장한 반면, 국회/정치인(27.5%, 197건)의 비율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언론(8.8%, 63건), 국방부(7.7%, 55건), 일반인(4.6%, 33건), 시민단체(4.5%, 32건), 전문가(3.8%, 27건), 기업(3.4%, 24건), 익명(1.5%, 11건), 경찰·법조(1.0%, 7건), 기타(0.8%, 6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 시기는 사드 배치가 거의 확정됨에 따라 정치적 논쟁이 크게 나타나면서 국회/정치인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부터 보도 량도 크게 증가하고, 언론 정보원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특히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면서 사드 철회를 위한 집회나 시위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일반인들의 등장 비율도 증가하였다. 또한 1, 2단계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법조계 관련 정보원들도 3단계부터 등장하였다. 기업 관련 정보원은 1, 2단계에서 총 4번 등장하였으나, 3단계에서 25번 등장하면서 사드 배치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겨레>에서는 시민단체와 일반인이 많이 등장한 반면, <조선일보>에서는 익명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4. 3단계 신문사별 주 정보원 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3단계	주 정보원 유형	정부	빈도	93	168	261		
			신문사중%	32.1%	39.4%	36.5%		
		국방부	빈도	19	36	55		
			신문사중%	6.6%	8.5%	7.7%		
		국회/정치인	빈도	98	99	197		
			신문사중%	33.8%	23.2%	27.5%		
		기업	빈도	17	7	24		
			신문사중%	5.9%	1.6%	3.4%		
		언론	빈도	26	37	63		
			신문사중%	9.0%	8.7%	8.8%		
		전문가	빈도	14	13	27		
			신문사중%	4.8%	3.1%	3.8%		
		시민단체	빈도	7	25	32		
			신문사중%	2.4%	5.9%	4.5%		
		일반인	빈도	5	28	33		
			신문사중%	1.7%	6.6%	4.6%		
		익명(소식통)	빈도	9	2	11		
			신문사중%	3.1%	.5%	1.5%		
		경찰·법조	빈도	1	6	7		
			신문사중%	.3%	1.4%	1.0%		
		기타	빈도	1	5	6		
			신문사중%	.3%	1.2%	.8%		
		전체			빈도	290	426	716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45.596$ df=10 p=.000

⑦ 1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의 국적

단계별로 부 정보원의 국적을 살펴보면, 1단계의 경우에는 한국의 정보원(58.0%, 80건)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그 다음에는 미국(22.5%, 31건), 중국(13.0%, 18건), 일본(2.9%, 4건), 기타(2.2%, 3건), 북한(1.4%, 2건)의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주 정보원과 마찬가지로 1단계에는 한·미·중 3국만 많이 등장하였고, 다른 국가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한국(59.3%, 51건), 미국(20.9%, 18건), 중국(12.8%, 11건), 일본(2.3%, 2건), 북한(2.2%, 2건), 기타(2.2%, 2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한겨레〉는 한국(55.8%, 29건), 미국(25.0%, 13건), 중국(13.5%, 7건), 일본(3.8%, 2건), 기타(1.9%, 1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겨레〉에서는 북한 정보원이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5. 1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의 국적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1단계	부 정보원 국적	한국	빈도	51	29	80	
			신문사중%	59.3%	55.8%	58.0%	
		미국	빈도	18	13	31	
			신문사중%	20.9%	25.0%	22.5%	
		중국	빈도	11	7	18	
			신문사중%	12.8%	13.5%	13.0%	
		일본	빈도	2	2	4	
			신문사중%	2.3%	3.8%	2.9%	
		북한	빈도	2	0	2	
			신문사중%	2.3%	.0%	1.4%	
		기타	빈도	2	1	3	
			신문사중%	2.3%	1.9%	2.2%	
		전체		빈도	86	52	138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1.812$ df=5 p=.875

⑧ 2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의 국적

2단계에는 한국 정보원(55.8%, 91건)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중국(20.2%, 33건) 정보원이 미국(16.6%, 27건)보다 많이 등장하였다. 나머지 국가의 등장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한·미 양국이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대 입장 또한 한국정부에게 전달됐다. 2단계에는 러시아 정보원도 등장하였다.

〈조선일보〉에서는 한국(65.3%, 49건), 미국(16.0%, 12건), 중국(14.7%, 11건) 정보원이 많이 등장하였고, 일본, 북한, 기타 정보원의 비율은 1.3%(1건)로 확인되었다. 〈한겨레〉는 한국(47.7%, 42건), 중국(25.0%, 22건), 미국(17.0%, 15건), 러시아(3.4%, 3건), 기타(3.4%, 3건), 일본(2.3%, 2건), 북한(1.1%, 1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겨레>에서는 중국 정보원을, <조선일보>에서는 한국 정보원을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6. 2단계 신문사별 부정보원의 국적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2단계	부 정보원 국적	한국	빈도	49	42	91
			신문사중%	65.3%	47.7%	55.8%
		미국	빈도	12	15	27
			신문사중%	16.0%	17.0%	16.6%
		중국	빈도	11	22	33
			신문사중%	14.7%	25.0%	20.2%
		일본	빈도	1	2	3
			신문사중%	1.3%	2.3%	1.8%
		러시아	빈도	0	3	3
			신문사중%	.0%	3.4%	1.8%
		북한	빈도	1	1	2
			신문사중%	1.3%	1.1%	1.2%
		기타	빈도	1	3	4
			신문사중%	1.3%	3.4%	2.5%
전체		빈도	75	88	163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7.885$ df=6 p=.247

㉑ 3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 국적

3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한국(77.6%, 287건), 중국(11.1%, 41건), 미국(4.9%, 18건), 북한(2.4%, 9건), 기타(1.6%, 6건), 일본(1.4%, 5건), 러시아(1.1%, 4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 비해 정보원이 2배 이상 등장하였고, 주 정보원보다는 적지만 정보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논쟁이 심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에서는 한국(82.1%, 128건), 중국(12.8%, 20건), 미국(2.6%, 4건), 북한(1.3%, 2건), 기타(1.3%, 2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겨레>에서는 한국(74.3%, 159건), 중국(9.8%, 21건), 미국(6.5%, 14건), 북한(3.3%, 7건), 일본(2.3%,

5건), 러시아(1.9%, 4건), 기타(1.9%, 4건)의 순서로 높게 확인되었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부 정보원에서 주로 한국 정보원이 많이 등장하였고, 러시아 정보원은 등장하지 않았다. <한겨레>에서도 한국 정보원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러시아 정보원도 4건 등장하였다. 이처럼 3단계에서는 <조선일보>보다 <한겨레>의 부 정보원이 더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7. 3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의 국적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3단계	부 정보원 국적	한국	빈도	128	159	287
			신문사중%	82.1%	74.3%	77.6%
		미국	빈도	4	14	18
			신문사중%	2.6%	6.5%	4.9%
		중국	빈도	20	21	41
			신문사중%	12.8%	9.8%	11.1%
		일본	빈도	0	5	5
			신문사중%	.0%	2.3%	1.4%
		러시아	빈도	0	4	4
			신문사중%	.0%	1.9%	1.1%
		북한	빈도	2	7	9
			신문사중%	1.3%	3.3%	2.4%
		기타	빈도	2	4	6
			신문사중%	1.3%	1.9%	1.6%
전체			빈도	156	214	370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12.590$ df=6 p=.050

⑩ 1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 유형

부 정보원의 유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단계의 경우에는 정부(41.3%, 57건), 국방부(21.7%, 30건), 전문가(11.6%, 16건), 국회/정치인(10.1%, 14건), 언론(8.0%, 11건), 익명(6.5%, 9건), 시민단체(0.7%, 1건)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조선일보>에서는 정부(41.9%, 36건), 국방부(23.3%, 20건), 전문가(10.5%, 9건), 익명(9.3%, 8건), 국회/정치인(8.1%, 7건), 언론(7.0%, 6건)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겨레>에서는 정부(40.4%, 21건), 국방부(19.2%, 10건), 국회/정치인

(13.5%, 7건), 전문가(13.5%, 7건), 언론(9.6%, 5건), 시민단체(1.9%, 1건), 익명(1.9%, 1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시민단체 관련 정보원이 없었고, <한겨레>에서는 일반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시기에는 기업, 기타, 법조계 관련 정보원들은 등장하지 않았다. 주 정보원 가운데 기업과 관련 정보원은 1건만 등장했는데, 부 정보원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사드는 기업과 관련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8. 1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 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1단계	부 정보원 유형	정부	빈도	36	21	57		
			신문사중%	41.9%	40.4%	41.3%		
		국방부	빈도	20	10	30		
			신문사중%	23.3%	19.2%	21.7%		
		국회/정치인	빈도	7	7	14		
			신문사중%	8.1%	13.5%	10.1%		
		언론	빈도	6	5	11		
			신문사중%	7.0%	9.6%	8.0%		
		전문가	빈도	9	7	16		
			신문사중%	10.5%	13.5%	11.6%		
		시민단체	빈도	0	1	1		
			신문사중%	.0%	1.9%	.7%		
		익명(소식통)	빈도	8	1	9		
			신문사중%	9.3%	1.9%	6.5%		
		전체			빈도	86	52	138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6.057$ df=6 p=.417

㉠ 2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 유형

2단계에는 1단계와 같이 기업, 법조, 기타 등의 정보원이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부(41.1%, 67건), 국방부(20.2%, 33건), 국회/정치인(14.1%, 23건), 언론(11.0%, 18건), 전문가(8.0%, 13건), 시민단체(3.1%, 5건), 익명(1.8%, 3건), 일반인(0.6%, 1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1단계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 정보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9. 2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 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2단계	부 정보원 유형	정부	빈도	31	36	67	
			신문사중%	41.3%	40.9%	41.1%	
		국방부	빈도	12	21	33	
			신문사중%	16.0%	23.9%	20.2%	
		국회/정치인	빈도	15	8	23	
			신문사중%	20.0%	9.1%	14.1%	
		언론	빈도	8	10	18	
			신문사중%	10.7%	11.4%	11.0%	
		전문가	빈도	6	7	13	
			신문사중%	8.0%	8.0%	8.0%	
		시민단체	빈도	0	5	5	
			신문사중%	.0%	5.7%	3.1%	
		일반인	빈도	0	1	1	
			신문사중%	.0%	1.1%	.6%	
		익명(소식통)	빈도	3	0	3	
			신문사중%	4.0%	.0%	1.8%	
		전체		빈도	75	88	163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13.489$ df=7 p=.061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정부(41.3%, 31건), 국회/정치인(20.0%, 15건), 국방부(16.0%, 12건), 언론(10.7%, 8건), 전문가(8.0%, 6건), 익명(4.0%, 3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겨레〉는 정부(40.9%, 36건), 국방부(23.9%, 21건), 언론(11.4%, 10건), 국회/정치인(9.1%, 8건), 전문가(8.0%, 7건), 시민단체(5.7%, 5건), 일반인(1.1%, 1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두 개의 신문사에서 정보원 유형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시민단체와 일반인이 없고, 〈한겨레〉는 익명 정보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겨레〉의 국방부 관련 정보원의 비율이 〈조선일보〉보다 크게 나타났고, 조선일보는 국회/정치인이 〈한겨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⑫ 3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 유형

3단계의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국회/정치인(30.5%, 113건), 정부(27.6%, 102건),

언론(9.5%, 35건), 전문가(7.8%, 29건), 국방부(7.0%, 26건), 일반인(6.2%, 23건), 시민단체(4.9%, 18건), 익명(2.7%, 10건), 기업(2.2%, 8건), 기타(1.1%, 4건), 경찰·법조(0.5%, 2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30. 3단계 신문사별 부 정보원 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3단계	부정보원 유형	정부	빈도	33	69	102
			신문사중%	21.2%	32.2%	27.6%
		국방부	빈도	12	14	26
			신문사중%	7.7%	6.5%	7.0%
		국회/정치인	빈도	62	51	113
			신문사중%	39.7%	23.8%	30.5%
		기업	빈도	4	4	8
			신문사중%	2.6%	1.9%	2.2%
		언론	빈도	17	18	35
			신문사중%	10.9%	8.4%	9.5%
		전문가	빈도	10	19	29
			신문사중%	6.4%	8.9%	7.8%
		시민단체	빈도	2	16	18
			신문사중%	1.3%	7.5%	4.9%
		일반인	빈도	6	17	23
			신문사중%	3.8%	7.9%	6.2%
		익명(소식통)	빈도	10	0	10
			신문사중%	6.4%	.0%	2.7%
		경찰·법조	빈도	0	2	2
			신문사중%	.0%	.9%	.5%
기타	빈도	0	4	4		
	신문사중%	.0%	1.9%	1.1%		
전체		빈도	156	214	370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40.813$ df=10 p=.000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국회/정치인(39.7%, 62건), 정부(21.2%, 33건), 언론(10.9%, 17건), 국방부(7.7%, 12건), 전문가(6.4%, 10건), 익명(6.4%, 10건), 일반인(3.8%, 6건), 기업(2.6%, 4건), 시민단체(1.3%, 2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겨레〉는 정부(32.2%, 69건), 국회/정치인(23.8%, 51건), 전문가(8.9%, 19건), 언론(8.4%, 18건), 일반인(7.9%, 17건), 시민단체(7.5%, 16건), 국방부(6.5%, 14건), 가타(1.9%, 4건), 기업(1.9%, 4건), 경찰·법조(0.9%, 2건)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일보〉에서는 법조계와 기타 정보원이 등장하지 않았고, 〈한겨레〉는 익명 정보원이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겨레〉의 경우, 시민단체와 일반인의 비율이 〈조선일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국방부 관련 정보원은 감소한 동시에 국회/정치인들은 많이 등장하였다. 특히 국회/정치인의 비율은 정부 정보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정보원과 마찬가지로 한국 내에서 정치 논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언론보도도 증가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증가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시위나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일반인들도 많이 등장하였다. 기타와 법조도 마찬가지로 3단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4) 시기별 신문사별 프레임 변화

① 1단계 신문사별 주 프레임 유형

주 프레임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의 경우에는 ‘신 냉전 프레임(33.2%, 86건)’이 가장 많았고, ‘안보 프레임(13.1%, 34건)’과 ‘패권주의 프레임(13.1%, 34건)’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는 ‘정치 갈등 프레임(11.2%, 29건)’, ‘한미동맹 프레임(10.0%, 26건)’, ‘북한위협 프레임(7.7%, 20건)’, ‘사드 사양 프레임(7.3%, 19건)’, ‘경제 프레임(1.5%, 4건)’, ‘기타 프레임(1.5%, 4건)’, ‘폴뿌리 민주주의 프레임(1.2%, 3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선일보〉에서는 ‘신 냉전 프레임(27.6% 45건)’, ‘안보 프레임(17.8%, 29건)’, ‘한미동맹 프레임(12.9%, 21건)’, ‘패권주의 프레임(11.0%, 18건)’, ‘정치 갈등 프레임(10.4%, 17건)’, ‘북한위협 프레임(8.6%, 14건)’, ‘사드 사양 프레임(8.0%, 13건)’, ‘기타 프레임(2.5%, 4건)’, ‘경제 프레임(1.2%, 2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폴뿌리 민주주의 프레임’은 등장하지 않았다. 〈한겨레〉의 경우에는 ‘신 냉전 프레임

(42.7%, 41건), ‘패권주의 프레임(16.7%, 16건)’, ‘정치 갈등 프레임(12.5%, 12건)’, ‘사드 사양 프레임(6.3%, 6건)’, ‘북한위협 프레임(6.3%, 6건)’, ‘안보 프레임(5.2%, 5건)’, ‘한미동맹 프레임(5.2%, 5건)’,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3.1%, 3건)’, ‘경제 프레임(2.1%, 2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겨레>는 1단계에서 ‘기타 프레임’이 등장하지 않았다.

표 31. 1단계 두 신문사별의 주 프레임 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1단계	주 프레임	안보	빈도	29	5	34
			신문사중%	17.8%	5.2%	13.1%
		신 냉전	빈도	45	41	86
			신문사중%	27.6%	42.7%	33.2%
		북한위협	빈도	14	6	20
			신문사중%	8.6%	6.3%	7.7%
		패권주의	빈도	18	16	34
			신문사중%	11.0%	16.7%	13.1%
		풀뿌리민주주의	빈도	0	3	3
			신문사중%	.0%	3.1%	1.2%
		정치 갈등	빈도	17	12	29
			신문사중%	10.4%	12.5%	11.2%
		경제	빈도	2	2	4
			신문사중%	1.2%	2.1%	1.5%
		사드사양	빈도	13	6	19
			신문사중%	8.0%	6.3%	7.3%
		한미동맹	빈도	21	5	26
			신문사중%	12.9%	5.2%	10.0%
		기타	빈도	4	0	4
			신문사중%	2.5%	.0%	1.5%
전체		빈도	163	96	259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25.078$ df=9 p=.003

두 개 신문사를 비교해 보면, <조선일보>는 안보와 한미동맹을 강조한 반면, <한겨레>는 신 냉전에 대한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의 주 프레임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보면 ‘신 냉전’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시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패권주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도 나타났다. 또한 안보문제

도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고 정치 갈등이 있지만 크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2단계 신문사별 주 프레임 유형

2단계에서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신 냉전 프레임(35.5%, 110건)’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 ‘정치 갈등 프레임(18.1%, 56건)’, ‘북한위협 프레임(10.0%, 31건)’, ‘사드 사양 프레임(9.7%, 30건)’, ‘패권주의 프레임(7.7%, 24건)’, ‘한미동맹 프레임(5.2%, 16건)’, ‘안보 프레임(4.8%, 15건)’, ‘경제 프레임(3.9%, 12건)’, ‘폴뿌리 민주주의 프레임(3.2%, 10건)’, ‘기타 프레임(1.9%,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신 냉전 프레임(27.2%, 43건)’, ‘정치 갈등 프레임(16.5%, 26건)’, ‘북한위협 프레임(14.6%, 23건)’, ‘사드 사양 프레임(12.7%, 20건)’, ‘패권주의 프레임(9.5%, 15건)’, ‘안보 프레임(8.2%, 13건)’, ‘한미동맹 프레임(5.7%, 9건)’, ‘기타 프레임(3.8%, 6건)’, ‘경제 프레임(1.9%,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에서는 ‘신 냉전 프레임(44.1%, 67건)’, ‘정치 갈등 프레임(19.7%, 30건)’, ‘사드 사양 프레임(6.6%, 10건)’, ‘폴뿌리 민주주의 프레임(6.6%, 10건)’, ‘경제 프레임(5.9%, 9건)’, ‘패권주의 프레임(5.9%, 9건)’, ‘북한위협 프레임(5.3%, 8건)’, ‘한미동맹 프레임(4.6%, 7건)’, ‘안보 프레임(1.3%,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개 신문을 비교해 보면, 〈조선일보〉는 〈한겨레〉에 비해 안보, 북한위협, 패권주의, 사드 사양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조한 반면, 〈한겨레〉는 신 냉전과 폴뿌리 민주주의를 더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들어오면서 한·미 정부의 사드 추진이 한국 국내 정치 논쟁이 심해진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두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드를 추진함에 따라 사드의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내용은 적어졌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1단계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아진 반면, 안보에 대한 내용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 2단계 두 신문사별의 주 프레임 유형

구분				조선일보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2단계	주 프레임	안보	빈도	13	2	15
			신문사중%	8.2%	1.3%	4.8%
		신 냉전	빈도	43	67	110
			신문사중%	27.2%	44.1%	35.5%
		북한위협	빈도	23	8	31
			신문사중%	14.6%	5.3%	10.0%
		패권주의	빈도	15	9	24
			신문사중%	9.5%	5.9%	7.7%
		풀뿌리민주주의	빈도	0	10	10
			신문사중%	.0%	6.6%	3.2%
		정치 갈등	빈도	26	30	56
			신문사중%	16.5%	19.7%	18.1%
		경제	빈도	3	9	12
			신문사중%	1.9%	5.9%	3.9%
		사드사양	빈도	20	10	30
			신문사중%	12.7%	6.6%	9.7%
		한미동맹	빈도	9	7	16
			신문사중%	5.7%	4.6%	5.2%
		기타	빈도	6	0	6
			신문사중%	3.8%	.0%	1.9%
전체			빈도	158	152	310
			신문사중%	100.0%	100.0%	100.0%

$x^2=44.831$ df=9 p=.000

③ 3단계 신문사별 주 프레임 유형

3단계에서는 한국 내에서 사드 관련 논쟁이 계속 심해지면서 ‘정치 갈등 프레임 (30.7%, 237건)’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 ‘신 냉전 프레임(18.1%, 140건)’,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13.3%, 103건)’, ‘북한위협 프레임(10.6%, 82건)’, ‘사드 사양 프레임(8.8%, 68건)’, ‘안보 프레임(5.6%, 43건)’, ‘경제 프레임(4.5%, 35건)’, ‘패권주의 프레임(3.8%, 29건)’, ‘기타 프레임(3.2%, 25건)’, ‘한미동맹 프레임(1.4%, 11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 3단계 신문사별 주 프레임 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3단계	주 프레임	안보	빈도	12	31	43
			신문사중%	3.7%	7.0%	5.6%
		신 냉전	빈도	49	91	140
			신문사중%	14.9%	20.4%	18.1%
		북한위협	빈도	42	40	82
			신문사중%	12.8%	9.0%	10.6%
		패권주의	빈도	20	9	29
			신문사중%	6.1%	2.0%	3.8%
		풀뿌리민주주의	빈도	21	82	103
			신문사중%	6.4%	18.4%	13.3%
		정치 갈등	빈도	109	128	237
			신문사중%	33.2%	28.8%	30.7%
		경제	빈도	18	17	35
			신문사중%	5.5%	3.8%	4.5%
		사드사양	빈도	39	29	68
			신문사중%	11.9%	6.5%	8.8%
		한미동맹	빈도	9	2	11
			신문사중%	2.7%	.4%	1.4%
		기타	빈도	9	16	25
			신문사중%	2.7%	3.6%	3.2%
전체			빈도	328	445	773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54.315$ df=9 p=.000

〈조선일보〉는 ‘정치 갈등 프레임(33.2%, 109건)’, ‘신 냉전 프레임(14.9%, 49건)’, ‘북한위협 프레임(12.8%, 42건)’, ‘사드 사양 프레임(11.9%, 39건)’,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6.4%, 21건)’, ‘패권주의 프레임(6.1%, 20건)’, ‘경제 프레임(5.5%, 18건)’, ‘안보 프레임(3.7%, 12건)’, ‘한미 동맹 프레임(2.7%, 9건)’, ‘기타 프레임(2.7%, 9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겨레〉의 경우에는 ‘정치 갈등 프레임(28.8%, 128건)’, ‘신 냉전 프레임(20.4%, 91건)’,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18.4%, 82건)’, ‘북한위협 프레임(9.0%, 40건)’, ‘안보 프레임(7.0%, 31건)’, ‘사드 사양 프레임(6.5%, 29건)’, ‘경제 프레임(3.8%, 17건)’, ‘기타 프레임(3.6%, 16건)’, ‘패권주의 프

레임(2.0%, 9건)', '한미동맹 프레임(0.4%, 2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 2단계와 달리 3단계에서는 <한겨레>가 안보를 더 많이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특히 한국 국내 정치 논쟁이 거의 백열화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민들의 반응도 강하게 나타났다. 1, 2단계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은 총 13건 밖에 되지 않았던 반면, 3단계에서는 103건이 등장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내용이 시기가 지남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1단계 신문사별 부 프레임 유형

시기별로 부 프레임을 살펴보면, '신 냉전 프레임'보다 '안보 프레임'을 더 강조했다. 1단계를 살펴보면 '안보 프레임(28.6%, 54건)', '신 냉전 프레임(24.9%, 47건)', '북한위협 프레임(18.5%, 35건)', '경제 프레임(7.4%, 14건)', '패권주의 프레임(6.9%, 13건)', '한미동맹 프레임(5.3%, 10건)', '사드 사양 프레임(3.2%, 6건)', '기타 프레임(2.6%, 5건)', '정치 갈등 프레임(2.1%, 4건)',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0.5%, 1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선일보>에서는 '안보 프레임(32.2%, 38건)', '북한위협 프레임(24.6%, 29건)', '신 냉전 프레임(14.4%, 17건)', '경제 프레임(8.5%, 10건)', '한미동맹 프레임(5.1%, 6건)', '사드 사양 프레임(4.3%, 6건)', '기타 프레임(4.2%, 5건)', '정치 갈등 프레임(2.5%, 3건)', '패권주의 프레임(2.5%, 3건)',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0.8%, 1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한겨레>의 경우에는 '신 냉전 프레임(42.3%, 30건)', '안보 프레임(22.5%, 16건)', '패권주의 프레임(14.1%, 10건)', '북한위협 프레임(8.5%, 6건)', '경제 프레임(5.6%, 4건)', '한미동맹 프레임(5.6%, 4건)', '정치 갈등 프레임(1.4%, 1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부 프레임 가운데 패권주의, 정치갈등 프레임은 주 프레임과 달리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선일보>는 주로 안보문제와 북한위협을 강조했고, <한겨레>는 신 냉전과 패권주의 위주로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1단계 신문사별 부 프레임 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1단계	부 프레임	안보	빈도	38	16	54
			신문사중%	32.2%	22.5%	28.6%
		신 냉전	빈도	17	30	47
			신문사중%	14.4%	42.3%	24.9%
		북한위협	빈도	29	6	35
			신문사중%	24.6%	8.5%	18.5%
		패권주의	빈도	3	10	13
			신문사중%	2.5%	14.1%	6.9%
		풀뿌리민주주의	빈도	1	0	1
			신문사중%	.8%	.0%	.5%
		정치 갈등	빈도	3	1	4
			신문사중%	2.5%	1.4%	2.1%
		경제	빈도	10	4	14
			신문사중%	8.5%	5.6%	7.4%
		사드사양	빈도	6	0	6
			신문사중%	5.1%	.0%	3.2%
		한미동맹	빈도	6	4	10
			신문사중%	5.1%	5.6%	5.3%
	기타	빈도	5	0	5	
		신문사중%	4.2%	.0%	2.6%	
전체		빈도	118	71	189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38.081$ df=9 p=.000

⑤ 2단계 신문사별 부 프레임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와 같이 ‘안보 프레임(29.6%, 66건)’, ‘신냉전 프레임(25.1%, 56건)’, ‘북한위협(19.7%, 44건)’이 많이 나타났고, 이어 ‘패권주의 프레임(10.3%, 23건)’, ‘사드 사양 프레임(4.0%, 9건)’, ‘한미동맹 프레임(4.0%, 9건)’, ‘경제 프레임(2.7%, 6건)’, ‘정치 갈등 프레임(2.2%, 5건)’,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1.3%, 3건)’, ‘기타 프레임(0.9%, 2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단계와 달리 2단계에서는 ‘패권주의 프레임’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경제 프레임’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명확하게 나타남에 따라

부 프레임의 내용도 대부분 명확하게 드러났다.

〈조선일보〉에서는 ‘안보 프레임(34.9%, 37건)’, ‘북한위협 프레임(26.4%, 28건)’, ‘신 냉전 프레임(22.6%, 24건)’, ‘한미 동맹 프레임(5.7%, 6건)’, ‘패권주의 프레임(3.8%, 4건)’, ‘폴뿌리 민주주의 프레임(1.9%, 2건)’, ‘기타 프레임(1.9%, 2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 갈등 프레임’, ‘경제 프레임’, ‘사드사양 프레임’은 각 한건(0.9%)씩만 나타났다. 〈한겨레〉의 경우에는 ‘신 냉전 프레임(27.1%, 32건)’, ‘안보 프레임(24.8%, 29건)’, ‘패권주의 프레임(16.2%, 19건)’, ‘북한위협 프레임(13.7%, 16건)’, ‘사드 사양 프레임(6.8%, 8건)’, ‘정치 갈등 프레임(3.4%, 4건)’, ‘한미동맹 프레임(2.6%, 3건)’, ‘폴뿌리 민주주의 프레임(0.9%, 1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조선일보〉는 안보, 북한위협의 내용을 많이 강조한 반면, 〈한겨레〉는 앞과 같이 신 냉전을 계속 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5. 2단계 신문사별 부 프레임 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2단계	부 프레임	안보	빈도	37	29	66
			신문사중%	34.9%	24.8%	29.6%
		신 냉전	빈도	24	32	56
			신문사중%	22.6%	27.4%	25.1%
		북한위협	빈도	28	16	44
			신문사중%	26.4%	13.7%	19.7%
		패권주의	빈도	4	19	23
			신문사중%	3.8%	16.2%	10.3%
		폴뿌리민주주의	빈도	2	1	3
			신문사중%	1.9%	.9%	1.3%
		정치 갈등	빈도	1	4	5
			신문사중%	.9%	3.4%	2.2%
		경제	빈도	1	5	6
			신문사중%	.9%	4.3%	2.7%
		사드사양	빈도	1	8	9
			신문사중%	.9%	6.8%	4.0%

	한미동맹	빈도	6	3	9
		신문사중%	5.7%	2.6%	4.0%
	기타	빈도	2	0	2
		신문사중%	1.9%	.0%	.9%
	전체	빈도	106	117	223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27.938$ df=9 p=.001

⑥ 3단계 신문사별 부 프레임 유형

3단계에서는 ‘안보 프레임(34.9%, 174건)’, ‘신 냉전 프레임(22.6%, 113건)’, ‘북한 위협 프레임(12.6%, 63건)’, ‘경제 프레임(6.0%, 30건)’, ‘정치 갈등 프레임(5.8%, 29건)’, ‘사드 사양 프레임(5.8%, 29건)’, ‘폴뿌리 민주주의 프레임(5.6%, 28건)’, ‘한미동맹 프레임(3.8%, 19건)’, ‘패권주의 프레임(2.8%, 14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조선일보〉를 살펴본 결과, ‘안보 프레임(41.0%, 87건)’, ‘신 냉전 프레임(21.7%, 46건)’, ‘북한위협 프레임(9.0%, 19건)’, ‘사드 사양 프레임(6.6%, 14건)’, ‘정치 갈등 프레임(6.1%, 13건)’, ‘폴뿌리 민주주의 프레임(5.2%, 11건)’, ‘한미동맹 프레임(4.7%, 10건)’, ‘경제 프레임(3.3%, 7건)’, ‘패권주의 프레임(2.4%, 5건)’ 등의 순서로 높게 확인되었다. 〈한겨레〉는 ‘안보 프레임(30.3%, 87건)’, ‘신 냉전 프레임(22.6%, 67건)’, ‘북한위협 프레임(15.3%, 44건)’, ‘경제 프레임(8.0%, 23건)’, ‘폴뿌리 민주주의 프레임(5.9%, 17건)’, ‘정치 갈등 프레임(5.6%, 16건)’, ‘사드 사양 프레임(5.2%, 15건)’, ‘패권주의 프레임(3.1%, 9건)’, ‘한미동맹 프레임(3.1%, 9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두 개 신문사 모두에서 ‘기타 프레임’은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한겨레〉는 〈조선일보〉에 비해 신 냉전, 북한위협, 폴뿌리 민주주의, 경제 등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다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6. 3단계 신문사별 부 프레임 유형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3단계	부 프레임	안보	빈도	87	87	174
			신문사중%	41.0%	30.3%	34.9%
		신 냉전	빈도	46	67	113
			신문사중%	21.7%	23.3%	22.6%
		북한위협	빈도	19	44	63
			신문사중%	9.0%	15.3%	12.6%
		패권주의	빈도	5	9	14
			신문사중%	2.4%	3.1%	2.8%
		풀뿌리민주주의	빈도	11	17	28
			신문사중%	5.2%	5.9%	5.6%
		정치 갈등	빈도	13	16	29
			신문사중%	6.1%	5.6%	5.8%
	경제	빈도	7	23	30	
		신문사중%	3.3%	8.0%	6.0%	
	사드사양	빈도	14	15	29	
		신문사중%	6.6%	5.2%	5.8%	
	한미동맹	빈도	10	9	19	
		신문사중%	4.7%	3.1%	3.8%	
전체	빈도	212	287	499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14.232$ df=8 p=.076

3단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보 프레임’, ‘신 냉전 프레임’, ‘북한위협 프레임’, ‘경제 프레임’,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 ‘정치 갈등 프레임’, ‘사드 사양 프레임’, ‘한미동맹 프레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1, 2단계와 같이 안보, 신 냉전, 북한위협에 대해 많이 강조했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더불어 정치 갈등도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드 사양 프레임’의 비율도 높아진 동시에 정부와 여·야당의 태도 또한 명확해졌다. 하지만 ‘기타 프레임’은 한 건도 등장하지 않았다.

(4) 시기별 신문사별 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

① 1단계 신문사별 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

1단계에서는 신문사별 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에서 신문사 간 큰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립(56.4%, 31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반대(27.3%, 15건), 찬성(16.4%, 9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중립(75.0%, 27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찬성(25.0%, 9건)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대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한겨레〉는 찬성이 없었고, 반대(78.9%, 15건) 15건, 중립(21.1%, 3건) 4건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수치를 보면, 두 개 신문사의 보도태도는 명확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겨레〉는 1단계에 건수가 많지 않지만 비율에서 보면 〈조선일보〉보다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표 37. 1단계 신문사별 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1단계	보도태도	찬성	빈도	9	0	9
			신문사중%	25.0%	.0%	16.4%
		중립	빈도	27	4	31
			신문사중%	75.0%	21.1%	56.4%
		반대	빈도	0	15	15
			신문사중%	.0%	78.9%	27.3%
전체		빈도	36	19	55	
		신문사중%	100.0%	100.0%	100.0%	

$\chi^2=39.593$ df=2 p=.000

② 2단계 신문사별 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

2단계에서는 신문사별 보도태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35.5%, 22건), 중립(32.3%, 20건), 반대(32.3%, 20건)의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찬성(61.1%, 22건), 중립(38.9%, 14건)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한겨레〉는 반대(76.9%, 20건), 중립(23.1%, 6건)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38. 2단계 신문사별 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2단계	보도태도	찬성	빈도	22	0	22
			신문사중%	61.1%	.0%	35.5%
		중립	빈도	14	6	20
			신문사중%	38.9%	23.1%	32.3%
		반대	빈도	0	20	20
			신문사중%	.0%	76.9%	32.3%
전체		빈도	36	26	62	
		신문사중%	100.0%	100.0%	100.0%	

$x^2=4.751$ df=2 p=.000

③ 3단계 신문사별 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

3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중립(43.6%, 48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찬성(30.9%, 34건), 반대(25.5%, 28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39. 3단계 신문사별 사설 및 칼럼의 보도태도

구분			신문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3단계	보도태도	찬성	빈도	34	0	34
			신문사중%	57.6%	.0%	30.9%
		중립	빈도	24	24	48
			신문사중%	40.7%	47.1%	43.6%
		반대	빈도	1	27	28
			신문사중%	1.7%	52.9%	25.5%
전체		빈도	59	51	110	
		신문사중%	100.0%	100.0%	100.0%	

$x^2=57.867$ df=2 p=.000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찬성(57.6%, 34건)과 중립(40.7%, 24건)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찬성의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겨레〉는

반대(52.9%, 27건)와 중립(47.1%, 24건)의 순서로 나타면서 반대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조선일보>의 경우 반대 입장을 보이는 기사가 한건 있었는데, 이는 신문사의 성향을 좌우하기 힘든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반면 <한겨레>에서는 찬성 입장이 1건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개 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단계별로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1, 2, 3단계를 따로 살펴보면, 각 단계별로 중립의 태도가 가장 많았고, 찬성과 반대 입장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 2단계에서는 사실, 칼럼의 건수에 큰 차이가 없었고, 3단계부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드에 대한 한국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프레임을 비교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 두 신문사의 보도 량, 정보원, 프레임, 보도 태도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개 신문사의 사드 관련 보도 량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단계별로 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2단계(2016.2.7.~2016.7.12)의 건수가 가장 적었고 3단계(2016.7.13.~2016.9.30)의 보도 량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겨레>에서는 1단계(1999.1.22.~2016.2.6)에 비해 2, 3단계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사유형에서는 두 개 신문사 모두 스트레이트와 해설기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만 기획/연재기사, 사실, 칼럼은 <한겨레>보다 <조선일보>에서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독자투고가 6건 있었던 반면, <한겨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사드 관련 정보원의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 정보원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이어 미국과 중국 정보원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는 북한, 일본, 기타, 러시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원 유형에서는 두 신문사 모두에서 정부, 국방부, 정치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한겨레>에서는 시민단체와 일반인이 많이 등장하였고, <조선일보>는 전문가와 익명 정보원이 많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두 신문사 간의 정보원 선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한국 정보원은 시기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2단계부터 중국 정보원이 많이 등장하였다. 1단계에서는 미국 정보원이 중국 정보원보다 많이 등장하였지만 2, 3단계에는 중국 정보원이 더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국

가들은 시기에 따라 그 등장비율이 많아졌지만 높은 비율을 점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두 신문사의 주요 정보원은 정부 관련 정보원과 국방부 정보원 위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조선일보>에서는 <한겨레>에 비해 전문가가 더 많이 등장하였다. 2단계는 정부와 국방부 관련 정보원이 많이 등장하였지만 <한겨레>에서는 시민단체가 더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겨레>는 언론 관련 정보원을 많이 인용하였다. 3단계에서는 정치인들이 1, 2단계보다 비해 더 많이 등장하였고, <한겨레>에서는 시민단체와 일반인들이 2단계에 비해 더 많이 등장하였다.

셋째, 사드 관련 보도 프레임에서는 ‘신 냉전 프레임’이 가장 많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사드 배치로 아시아의 정세가 많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두 개 신문사 모두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국내에서 사드에 대한 논쟁이 심해지고 있었고, 여·야당 간 또한 정부와의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특히 <조선일보>가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한 많이 강조한 반면, <한겨레>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신 냉전 등의 내용을 많이 보도하였다. 이처럼 두 개 신문사 간의 성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선일보>는 정부의 관점을 많이 인용하였고, <한겨레>는 국민의 반응과 국제관계 등의 내용을 많이 강조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단계의 경우에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두 신문사가 주로 ‘신 냉전’에 대하여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선일보>는 <한겨레>보다 ‘안보’와 ‘한미동맹’ 등의 내용을 더 많이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부터는 두 신문사 간의 차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일보>는 ‘북한 위협’을 더 많이 강조하였고, <한겨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많이 보도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한국 국내 정치 논쟁이 심해지면서 ‘정치 갈등’이 주된 프레임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신 냉전’을 계속 강조하였고, ‘풀뿌리 민주주의’도 <조선일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넷째, 두 개 신문사 간 보도태도는 명확한 차이를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를 동의하면서 빨리 배치하면 좋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한겨레>는 사드는 미국의 ‘전략’이라는 주장 아래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겨레>는 ‘북한위협’ 관점에는 동의했지만 사드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2) 중국신문 참고결론

한편, 본 연구에서 중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분석대상이 아니지만, 사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내용을 결론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의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하나인 <환구시보>의 경우에는 핵심 데이터베이스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사를 살펴보지 못했다. 이에 <인민일보>, <광명일보>, <중국청년보> 등 중국의 3개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사드’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보았다.

전체 70건이 채 되지 않은 기사를 대상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주로 2가지 프레임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미국음모’ 프레임이고, 두 번째는 ‘중국피해’ 프레임이다. 중국의 언론 특성으로 인해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심사상’은 비슷하다. ‘미국음모’ 프레임은 미국정부가 중국을 감시하게 사드를 설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피해’ 프레임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경제, 군사, 특히 국가안전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 언론은 사드가 단순 방어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감시용 시스템’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연구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사드와 관련하여 한국의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드에 대한 보도에서 두 신문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사드에 대한 보도에서 나타난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보도시각의 차이이다. 보수신문인 <조선일보>는 주로 한국의 안위와 사드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독자들에게 위기감을 알려주고, 정부와 여당의 관점에 대한 지지의 태도를 많이 보여주었다. 또한 정보원도 보수주의자들 위주로 선택하였으며, 진보주의자와 야당의 관점을 비판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진보신문인 <한겨레>는 사드에 대해 무조건 비판하고 사드 배치가 미국의 음모라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사드 배치 시,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을 많이 강조하였고, 한국의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많이 보도하였다. 특히 <한겨레>는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을 많이 활용하면서 여론을 많이 반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보도태도의 차이이다. 두 신문사의 성향에 따라 보도태도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조선일보>는 사드에 대한 지지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정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사드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도 북한위협, 한미동맹 등의 관점을 많이 밝혔고, 이는 정부의 관점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한겨레>는 정부의 관점을 동의함과 동시에 사드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많이 비판하였다. 특히 사드에 대한 신 냉전, 풀뿌리 민주주의 등의 프레임을 많이 활용하면서 국민의 입장을 많이 대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드의 전자파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선일보>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꼭 배치해야 된

다”는 입장을 취했던 반면, <한겨레>는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절대
로 배치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사드와 관련하여 한국의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와 진보신문인 <한
겨레>의 보도 프레임과 정보원, 기사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이슈
에 대한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보도 프레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
후 한국 언론의 사드 관련 보도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사드에 대한 논의의 맥락을 정리함과 동시에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당초 한·중 비
교를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신문인 <인민일보>, <광명일보>, <중
국청년보> 등에서 사드 관련 보도 건수가 많지 않아 본래의 연구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추후 한·중 신문 간 사드 관련 비교연구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문자로 된 신문기사만 분석함에 따라 방송뉴스는 고려하지 못했
다는 제한점도 있다. 향후 영상매체까지 포함한 다양한 매체들을 분석하여 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추후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내원 (2001). 시사토론프로그램의 비판적 시청과 미디어교육적 함의: 프로그램 구성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8권 1호 45-67.
- 고영철·최낙진 (2006). 제주지역 신문 뉴스의 다양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 연구>, 제6권 2호 5-42.
- 고영철 (2013). 캠페인 관련 뉴스 프레임 및 뉴스정보의 출처에 관한 연구 -국내 5대 일간지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보도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30호, 187-250.
- 곽위위·유홍식 (2010). 중국 디베트 3.14사태에 대한 한·중 일간지의 보도프레임 비교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호, 217-265.
- 김성해·김동윤 (2009). 금융 위기와 언론: 2008 글로벌 위기에 대한 각국의 언론의 보도양상과 프레임. <언론과학연구>, 제9권 4호, 98-134.
- 김은미·반현 (2012).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언론의 위해 식품 보도 태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17호, 234-257.
- 김춘식 (2015).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프레임 형식과 유형 분석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병곤 (2001). <남북정상회담 관련 보도의 논조 비교연구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대민 (2013). 뉴스 기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서 뉴스정보원연결망분석. <한국언론학보>, 57권 6호, 234-262.
- 박성태 (2011). 사회 갈등적 공공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연구: 정권교체기 보수와 진보언론의 교육정책 관련 보도태도 분석. <한국경정관리학보>, 제25권 제33호, 97-118.
- 박은혜·김영옥 (2007). 언론 프레임과 이미지 회복 전략이 공중의 위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38권, 73-118.
- 반정홍 (2004). <1990년대 이후 중국 인민일보의 남북한 보도 비교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우·김수연 (2011). 인도주의적 개입의 프레임링: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5권 제6호, 331-355.
- 박태우·이상식 (2013). 지역 갈등 이슈의 뉴스 프레임 구성에 대한 연구: 동남권공항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3권 3호, 251-297.
- 박혜진·차수연·남유진·김도훈 (2015). 뉴스프레임 유형과 정부 신뢰도가 금연정책 지지도와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연구>, 제19권 1호, 1-29.
- 설진아·남궁강 (2007). <6자 회담>에 관한 텔레비전 외교 뉴스의 정보원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21권 4호, 69-100.
- 신승훈·정혁 (2009). 내용분석을 통한 양적연구방법을 통한 체육학 연구 실태. <체육연구>, 제5권 제2호, 33-42.
- 심홍식 (2012). <한국언론의 보수와 진보 프레임에 관한 분석적 고찰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한미FTA 사설 분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천효·유홍식 (2015). 뉴스 보도에서 예시와 프레임의 공존이 수용자의 이슈 지각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36호, 61-96.
- 유세경·김미라 (2002). 미국, 한국, 중국 일간지의 '9.11테러' 뉴스보도 비교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8호, 165-198.
- 유세경·이석·정지인 (2010). 중국 일간지의 "한류" 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분석: 2001~2010년 기간에 보도된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57권, 202-226.
- 유재광·오경수 (2012). 신문의 뉴스프레임과 정치인 발언 보도태도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26호, 73-113.
- 윤영철 (1992). 지역사회 언론수용자 분석. <인간과 사회>, 통권 1호, 106-135.
- 이민 (2009). <중국 언론에 나타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연구: 인민일보와 북경청년보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서현·고영철 (2013).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관련 지역일간지의 뉴스 프레임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3호, 26-52.
- 이완수·베재영 (2015). 지역신문 뉴스구성요소의 구조분석: 부산일보 기사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권 3호, 221-266.

- 이진경 (2007). '한-미 FTA'이슈에 관한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호·이현주 (2001). 신문기사에 나타난 정보원의 권력 분포. <언론과학연구>, 1권 1호, 300-330.
- 임미영·안창현·감규식·유홍식 (2010). 박근혜에 대한 보도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권 3호, 457-498.
- 조아라 (2016). 독서 토론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에 따른 운영 및 효율화 방안- 동국대 경주캠퍼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10권 2호, 43-71.
- 차오잔윈 (2015). <메르스(MERS) 이슈에 대한 한국과 중국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한 프레임 연구- 조선일보와 환구시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영택·최외출 (2012). 신문 사설의 보도 프레임 분석을 통한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6권 제1호, 247-270.
- 최수진 (2014). 한류에 대한 미·중 언론보도 프레임 및 정서적 톤 분석 :사이의 '강남스타일'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Vol.58 No.2. 505-532.
- 최준수 (2013).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언론 프레임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비교하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건식 (2013). <한국신문의 사행산업에 관한 뉴스 보도와 프레임 비교분석: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광언 (1998). <미디어의 사회적 현실구성 이론의 현상학적 체계에 관한 연구-텔레비전 뉴스의 현실구성 기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겨레 (2016.9.21.) 넘쳐나는 “대북 소식통...” 대체 누구일까요.
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61983.html>
- 한동섭·유승현 (2008).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익명 정보원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8권 4호, 702-739.
- 한수정 (2009). <독립형 인터넷 신문과 종합일간지 뉴스 보도의 정보원 활용에 관한 연구: 'YTN 파업'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유선 (2012).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트위터 정보 전파력 비교 분석. <한국언론

학보), 56권 5호, 350-372.

LI SHUO (2010). <중국언론의 "한류" 관련 보도에 나타난 뉴스 프레임 연구, 중국 주요일가지 중심으로 (2001~2010)>.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WANG LILI (2012). < 한국신문에 나타난 중국관련 뉴스보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조선일보 2002년~2010년 중국관련 뉴스보도 내용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毕影达 (2016). 第四次朝核试验后中韩关系的挑战与应对策略. <한중관계 연구>, 제 2권 2호, 47-58.

朱思诺 (2014). <人民日报>, (1978~2012) 全国两会民生议题报道框架研究.

佳欣 (2013). <人民日报>, <纽约时报> 的金正恩形象构建.

王念 (2013). <中国青年报> 2004~2013十年城管执法事件的报道研究--以新闻框架理论为视角.

范晓玲 (2014). <中国日报> 和 <纽约时报> 国际新闻报道比较研究.

刘冲 (2015). 美国酝酿在韩部署“萨德”系统问题辨析.

肖伟 (2013). 试析新闻框架的层次与类型.

彭龙 (2007). 我国四份主要报纸奥运会新闻报道研究.

주간조선 (2016. 3. 14.) [이슈] 중국이 사드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URL: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98100005&ctcd=C03>

위키백과. DF-21. URL: <https://ko.wikipedia.org/wiki/DF-21>

두산백과. 한겨레.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0964&cid=40942&categoryId=31755>

U.S. Air Force. Anti-Access/Area Denial: The Evolution of Modern Warfare.
URL: <https://www.usnwc.edu/Lucent/OpenPdf.aspx?id=95>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rames between Korea's Key Conservative Press and Progressive Press –Focused on Reports related to THAAD–

The press reflects the most fundamental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of Korea. In other words, the news reports of international events or issues may vary in different countrie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Furthermore, press reports generally have a tendency of being edited differently based on the tone of the press company. This demonstrates that even regarding a singular issue, the perspective and point of view of a report may vary depending on the tendency of the press company.

Of course discussions are made on important issues, such as THAAD, which affect not only the relevant country, but the relationship with surrounding countries. This occurs from various perspectives – including social, diplomatic, cultural, economic, and military views. It signifies that if the scope of a specific issue includes diplomatic problems outside national borders, the perception from national and diplomatic positions on the issue may be further emphasized than the tone of the press.

In this regard, it is worth examining whether the discussions related to the arrangement of THAAD in Korea, which surfaced as a recent diplomatic issue, have been affected by the tone of the press. Thus,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frame of Korea's key

conservative press <ChosunIlbo> and progressive press <Hangyore> on reports related to ‘THAAD’.

The period of research was from January 22, 1999, the starting point of discussions on THAAD in Korea, to September 30, 2016, the point at which all prior determinations including the location to arrange THAAD had been set. As data for analysis, the keyword ‘THAAD’ was searched on the websites of the two newspaper companies to be collected. With <Hankyore>, the articles extracted from the website, on which the copyright was not owned by Hankyore, were directly inquired to the relevant press companies to identify the articles. Through this process, 734 articles from ChosunIlbo and 729 articles from Hankyore were extracted. After a primary analysis process, 121 articles that were not directly related to THAAD were eliminated. Thus, there were a total of 1324 final articles for analysis: 649 articles by ChosunIlbo and 693 articles by Hankyore.

The categories of analysis included the report quantity, source, frame, and attitude of the piece. With respect to the quantity, the number and types of reports of the two press companies were compared. With respect to source, the category was further categorized into the nationality and occupation of the source that appeared on the news. The category of frame was categorized into 10 frames, including ‘security frame’, ‘political conflict frame’, ‘new cold war frame’, ‘economy frame’, ‘grass-root democracy frame’, ‘hegemony frame’, ‘THAAD specifications frame’, ‘North Korea threat frame’, ‘Korea-USA alliance frame’, and ‘other’.

The result of analysis display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ess companies concerning the quantity. ChosunIlbo displayed a relatively large amount of editorials, columns, and running stories; however, Hankyore displayed more straight-forward and narrative articles.

With respect to the sources, Korean was the most common nationality of sources, followed by the USA and China. There were also Japanese, North Korean, Russian, and other sources, but these appeared less frequently. The most common occupation of the sources included professionals and anonymous sources in the ChosunIlbo,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public in Hankyore.

The most common frame in THAAD-related reports was the 'new cold war frame'. This signifies that once THAAD is placed in Korea, the position of Korea in Asia may suffer. In the ChosunIlbo in particular, it was identified that the security frame, THAAD specifications frame, and Korea-USA alliance frame featured highly whereas the Hankyore further emphasized the grass root democracy frame.

With respect to the reporting attitude, a clear difference was displayed between the two press companies. <ChosunIlbo> displayed a notably serious attitude towards THAAD, and reported positively on the government's position. In the process of reporting on THAAD, <ChosunIlbo> centered its reporting on the North Korean threat frame and Korea-USA alliance frame - this did not display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government's stated stance. In contrast, <Hankyore> appeared to be more critical o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ies and position on THAAD.

As a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the reporting time and attitude

of Korea's progressive press and conservative pres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tendency of the press concerning 'THAAD'.

Keywords: THAAD, frame, progressive press, conservative press, source, reporting attitude

부록: 코딩지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프레임 보도 분석:
사드(THAAD)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1. 신문사

- 1) 조선일보 2) 한겨레

2. 시기

- 1) 1단계 (1999. 1. 22. - 2016. 2. 6)
2) 2단계 (2016. 2. 7. - 2016. 7. 12)
3) 3단계 (2016. 7. 13. - 2016. 9. 30)

3. 기사유형

- 1) 스트레이트 2) 해설 3) 기획/연재 4) 사실 5) 칼럼 6) 인터뷰
7) 독자투고 8) 기타

4-1. 국가 정보원 유형

-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러시아 6) 북한 7) 기타

4-2. 사람 정보원 유형

- 1) 정부 2) 국방부 3) 국회/정치인 4) 기업 5) 언론 6) 전문가
7) 시민단체 8) 일반인 9) 익명(소식통) 10) 법조계 11)기타

5. 프레임 유형

- 1) 안보 프레임 2) 신 냉전 프레임 3) 북한위협 프레임 4) 패권주의 프레임
5) 풀뿌리 민주주의 프레임 6) 정치 갈등 프레임 7) 경제 프레임 8) 사드 사
양 프레임 9) 한미 동맹 프레임 10) 기타 프레임

6. 보도태도(사설/칼럼)

- 1) 찬성 2) 중립 3) 반대